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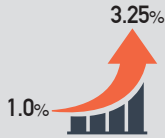
# II

## 업무 현황

1. 전략 수립 및 추진	25
2. 통화신용정책	26
3. 금융안정	33
4. 발권	42
5. 지급결제	49
6. 외환 및 국제협력	55
7. 조사통계	64
8. 국고 및 증권	74
9. 대외 커뮤니케이션	79

# 2022 한국은행

## 통화신용정책 수행



### 기준금리 인상

1월·4월·5월·7월·8월·10월·11월



### 공개시장운영

시장 상황을 고려한  
신축적인 유동성 조절



###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총 한도 39.8조 원

## 금융안정 책무 수행



### 금융안정 상황 점검 강화

금융안정회의 개최,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PF-ABCP 부도 사태 이후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등



### 외환시장 안정 조치

국민연금과의 스왑거래 실시 등

## 이슈 대비 및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



###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

러·우 전쟁,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 등  
대외여건 변화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연구 수행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강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진행,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 발간 등



### 경제통계시스템(ECOS) 재구축

통계 작성 및 검색의 효율성 제고



### 조사연구결과의 대외 공유 확대

한국은행 블로그 개설,  
BOK 이슈노트 발간 확대 등



### 대국민 소통 활성화

소셜미디어 활성화  
온라인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등



### 글로벌 정책공조 논의 적극 참여

BIS, G20, IMF 등 국제회의 참여,  
EMEAP 총재회의 개최 등

## 1. 전략 수립 및 추진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설립 목적을 완수하고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중앙은행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으로서의 업무 수행 목표와 우선순위 등을 부여한 3년 시계의 중기전략을 매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동 전략과 연계하여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중기전략은 주요 업무 분야별로 6개의 전략목표와 18개의 전략계획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각 절에는 각 업무 분야별로 전략계획과 연계된 주요 사업 내용과 성과 등이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중기전략은 보다 장기적인 10년 시계의 「중장기 발전전략(BOK 2030)」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국은행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 정책수행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높아지고 있는 중앙은행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도 적극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 「중장기 발전전략(BOK 2030)」을 수립하였다.

「중장기 발전전략(BOK 2030)」은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한국은행”을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영역 확대 및 정책수단 확충”, “조사연구의 질적 고도화”, “디지털 혁신의 적극 추진”, “단계적 경영인사 혁신”이라는 4대 전략목표를 수립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II - 1. 2022년 중기전략 목표 및 계획

<b>1 통화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안정적 성장 도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화정책의 효율적 운용 및 정책효과 분석 강화</li> <li>금융·외환 시장의 안정 도모</li> <li>금융불균형 완화 도모</li> <li>정책 커뮤니케이션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li> <li>금융안전망 확충 및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운용</li> </ul>
<b>2 조사연구 경쟁력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로운 금융경제 이슈에 대응한 조사연구 강화</li> <li>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수행체계 구축</li> <li>경제통계 서비스 고도화</li> </ul>
<b>3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 및 정책기능 강화</li> <li>지급결제 혁신 및 발전 도모</li> </ul>
<b>4 정책영역 확대 및 정책수단 확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은행 책무 확대 관련 연구 강화</li> <li>통화정책 운영체계 개선</li> <li>금융안정 책무수행 권한 강화 및 정책수단 개발</li> <li>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한 중앙은행 정책수단 개발</li> </ul>
<b>5 디지털 혁신 추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환경 및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li> <li>디지털 거버넌스 정립</li> </ul>
<b>6 경영인사 혁신 및 리스크 관리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장기 경영인사 혁신 방안의 성공적 추진</li> <li>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위기대응역량 강화</li> </ul>

자료: 한국은행

## 2. 통화신용정책<sup>48)</sup>

26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화정책 운영체제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동 체계 하에서도 정책결정은 물가 상황 외에 경제성장,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를 운용하고 있으며, 공개시장운영,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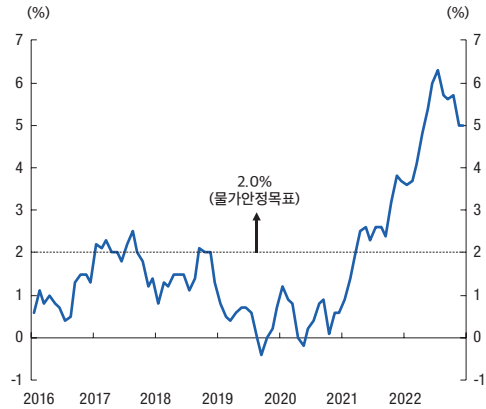
### 가. 물가안정목표

한국은행은 2016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로 설정하고 있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설정 시에는 목표수준을 종전(2016~18년)과 동일하게 2%로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한국은행은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중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요인에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수요요인이 더해지면서 소비자물가가 물가안정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5.1%를 기록하였다.

그림 II-1. 물가안정목표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나. 기준금리

한국은행은 2022년 중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데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7차례에 걸쳐 1.00%에서 3.25%로 인상하였다<sup>49)</sup>.

기간별로 살펴보면 상반기 중에는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빠르게 높아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1.00%에서 1.75%로 0.75% 포인트 인상하였다. 국내경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성장은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소비가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물가 상황을 보면 글로벌 공급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 상방압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48) 2022년 중 한국은행이 수행한 통화신용정책의 상세한 내용은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분기)」의 「II. 통화신용정책 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3월호, 2022년 6월호, 2022년 9월호, 2022년 12월호, 2023년 3월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체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한국은행이 발간한 「한국의 통화정책(20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4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제2절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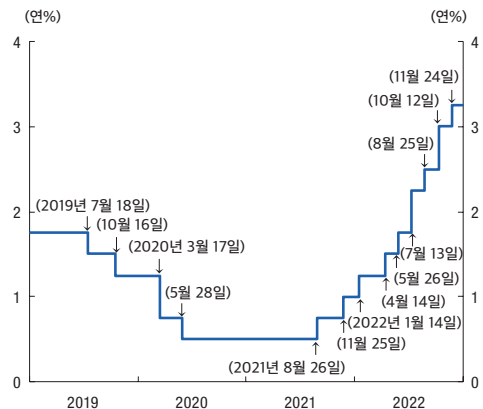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연초 3%대에서 3월에는 4%대로, 5월에는 5%대로 빠르게 높아졌다. 이러한 높은 물가 오름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가격 오름세가 둔화되는 등 그간 누증된 금융불균형 위험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경기와 물가 상황, 그리고 금융불균형 위험을 구조적으로 줄여 나갈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축소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하반기에는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지속함에 따라 기준금리를 1.75%에서 3.25%로 1.50% 포인트 인상하였다. 국내경제는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 갔지만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둔화 흐름은 202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물가 측면에서는 수요와 공급 측 상방압력이 모두 확대되면서 오름세가 상반기보다 확대되었다. 7월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199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6.3%(전년동기대비)를 기록하였고, 8월 이후에도 5~6%대의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 기준)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4%대로 높아짐에 따라 고물가 상황 고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금융불균형 위험이 완화되었지만, 외환부문에서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미달러화 강세에 엔화·위안화 약세와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이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까지 상승하였고, 이로 인한 물가상승압력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압력 증대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고물가 고착 우려와 외환부문의 리스크 증대를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긴축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한국은행은 2022년 중 기준금리를 1.00%에서 3.25%까지 인상하였는데, 이는 금융시장에 원활히 파급되며 그간 누증되어 왔던 가계부채 및 주택가격 측면의 불균형 위험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외환부문의 리스크 완화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물가 측면에서는 물가 상승압력의 추가 확대를 억제함으로써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목표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자물가에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시차를 두고 점차 둔화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영향은 2023년 중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 - 2. 기준금리



자료: 한국은행

#### 다. 공개시장운영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콜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환매조건부증권(RP), 통화안정계정 등 다양한 공개시장운영 수단을 활용하여 유동성을 신

축적으로 조절하였다.

2022년 중 유동성조절 필요규모<sup>50)</sup>(평잔 기준)는 160조 6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16조 8천억 원 감소하였다. 이는 화폐발행 증가 등으로 지준공급이 감소한 데다 수시입출식예금이 증가하면서 지준수요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였다. 한국은행은 이에 주로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며 RP매매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는 지준 수급 변동 등 단기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그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절하였다.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평잔 기준)는 유동성조절 필요규모 감소, 채권 투자심리 위축에 대응한 발행규모 축소 등으로 전년대비 23조 5천억 원 감소하였다. 한편 RP(순)매각규모(RP 매각에서 매입을 차감한 순액, 평잔 기준)는 전년 대비 5조 6천억 원 증가하였다. RP(순)매각규모 증가는 통화안정증권 발행 축소 등에 따른 RP매각 증가에 기인하였다. 한편 통화안정계정 예치규모(평잔 기준)는 전년 대비 1조 2천억 원 증가하였다.

표 II - 2.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 규모 (평잔 기준)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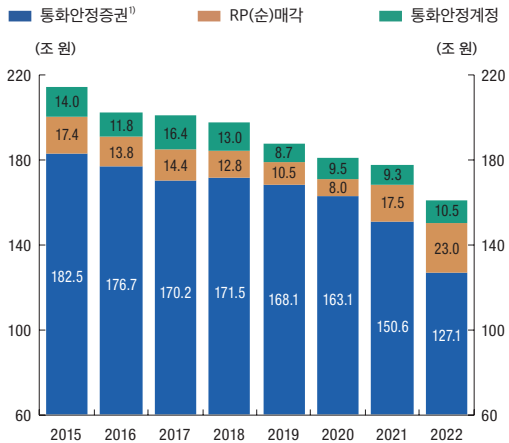
	2021		2022			
	연간		I	II	III	IV
유동성조절필요규모	177.4	160.6	166.0	169.4	161.8	145.4
통화안정증권	150.6	127.1	139.7	130.3	122.2	116.4
RP(순)매각잔액	17.5	23.0	19.3	27.6	26.3	18.9
RP매각	17.5	23.6	19.4	27.6	26.3	20.8
RP매입	0.0	0.5	0.1	0.0	0.0	2.0
통화안정계정	9.3	10.5	7.1	11.5	13.3	10.1

자료: 한국은행

이에 따라 전체 공개시장운영 수단에서 통화안정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중 84.9%에서 2022년 중 79.1%로 축소된 반면 RP(순)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비중은 2021년 중 각각 9.8%, 5.2%에서 2022년 중 14.3%, 6.5%로 확대되었다.

한편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보다 탄력적인 공개시장운영을 위하여 9월 중 7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차입하여 RP매각 규모를 확대하였다. 또한 통화안정증권 중도환매 규모도 기존에 4조 원을 정례입찰 실시하였으나 발행잔액 및 금융시장 여건 등을 반영하여 9월에는 3.5조 원, 11월에는 3.0조 원으로 축소하여 실시하였다.

그림 II - 3.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 규모 (평잔 기준)



주: 1)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상대매출 3조 4,763억 원(2014년 발행, 2015년 상환)과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상대매출 3조 4,487억 원(2015년 발행, 2016년 상환) 제외

자료: 한국은행

50) 유동성조절 필요규모는 은행이 중앙은행 계좌에 실제로 적립하고 있는 잔액인 지준 공급과 은행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법정 필요지준인 지준 수요의 차이로 정의한다. 민간의 현금보유(화폐발행액) 확대 등으로 은행의 중앙은행 계좌 잔액인 지준 공급이 감소하거나 예금 수신 증가 등에 따라 은행의 법정 필요 지준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유동성조절 필요규모가 감소한다.

## 라. 여수신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등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수신업무를 수행한다. 2022년 중 운용한 여수신업무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조정대출, 일중당좌대출 등이 있으며, 수신업무로는 당좌예금, 자금조정예금 및 통화안정계정예치금 등이 있다.

금융기관 등에 대한 원화대출금은 2022년 말 40조 9,750억 원으로 2021년 말 대비 6,952억 원 증가하였다.

표 II - 3. 한국은행 원화대출금<sup>1)</sup> (기말 기준)

(억 원)

	잔액		증감액
	2021	2022	
금융중개지원대출	378,338	392,493	14,155
회사채·CP 매입기구 (SPV <sup>2)</sup> )에 대한 대출	24,460	17,257	-7,203
합계	402,798	409,750	6,952

주: 1) 대정부대출금 제외

2)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유한회사

자료: 한국은행

예수금은 2022년 말 168조 4,651억 원으로 2021년 말 대비 8조 9,061억 원 증가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원화예수금이 21조 8,494억 원 증가하고 외화예수금이 12조 9,433억 원 감소하였다.

표 II - 4. 한국은행 예수금 (기말 기준)

(억 원)

	잔액		증감액
	2021	2022	
원화예수금	911,343	1,129,837	218,494
금융기관	883,159	1,084,505	201,346
비거주자 <sup>1)</sup>	28,184	45,332	17,148
외화예수금	684,247	554,814	-129,433
합계	1,595,590	1,684,651	89,061

주: 1) IMF 등 외국기관의 원화예금

자료: 한국은행

## 중소기업대출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운용

한국은행은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와 프로그램별 한도 및 한도 유보분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 상황,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하고 있다.

2022년 9월 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해온 점, 높은 물가상승세에 대해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신용정책을 통해서도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한시 프로그램<sup>51)</sup>의 신규 지원을 예정대로 종료하였다.

그러나, 한시적 금융지원이 종료되더라도 기존에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최대 1년)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2022년 4월부터는 상시 프로그램<sup>52)</sup> 중 지원 목적을 달성한 일부 프로그램의 운용을

51)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2020년 3월 도입),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2020년 10월 도입)

52)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내에서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상시 운용 중이다.

종료<sup>53)</sup>하고 이를 반영하여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 및 총 한도를 3.2조 원 감액하였다.

3월, 9월 및 11월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특히 컸던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을 지역본부에 긴급 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3월에는 한도 유보분 중 600억 원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강릉 및 포항본부에 각각 300억 원씩 긴급 배정하였으며, 9월 및 11월에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도 유보분 중 700억 원<sup>54)</sup>을 태풍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관할하는 포항본부에 긴급 배정하였다.

한편,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금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2022년 중 0.25% 포인트씩 6차례 인상하였다<sup>55)</sup>.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대출금리를 연 0.25%에서 유지하였다.

2022년 말 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39.8조 원이며 프로그램별 한도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1.5조 원,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3.0조 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0.3조 원,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5.9조 원, 한도유보분 19.1조 원이다.

표 II - 5.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조정 내용

(조 원,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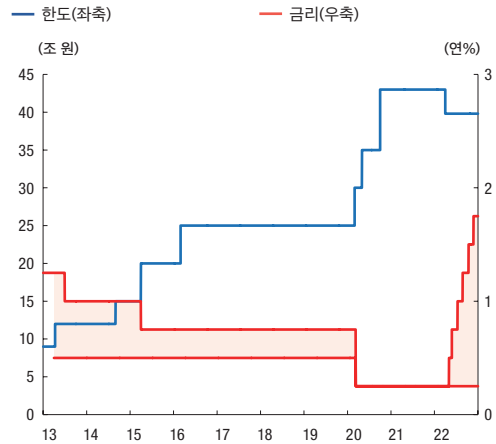
프로그램	조정전		조정후 <sup>1)</sup>		
	한도	금리	한도	금리	
무역금융지원	1.5	0.25	1.5	1.75	
신성장·일자리지원	13.0	0.25	13.0	1.75	
중소기업대출안정화	3.5	0.25	0.3 <sup>2)</sup>	1.75	
지방중소기업지원	5.9	0.25	5.9	1.75	
한도 유보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13.0	0.25	13.0	0.25
	소상공인 지원	6.0	0.25	6.0	0.25
	기타	0.1	0.25	0.1	1.75
합계	43.0	-	39.8	-	

주: 1) 2022년 말 기준

2)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 - 4.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및 금리<sup>1)</sup> 추이



주: 1) 명암은 프로그램별로 대출금리가 상이하았던 시기의 상·하한 구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53)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부분 중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한 신규지원 및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의 안정화 부분 운용을 2022년 4월 1일부터 종료하였다.

54) 2022년 9월 500억 원을 최초 배정한 이후 11월 200억 원을 증액하였다.

55) 2023년 1월에도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금리를 연 1.75%에서 연 2.00%로 0.25% 포인트 인상하였다.



## 마.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한국은행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글로벌 물가 급등, 주요국의 가파른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대내외 정책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 운영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참가자 및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먼저 2019년부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정례적(연 2회)으로 점검하기로 함에 따라, 6월과 12월 두 차례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물가 상황, 전망 및 리스크 요인, 향후 정책방향 등을 설명<sup>56)</sup>하는 한편, 매 분기 발행하는 「통화신용 정책보고서」를 통해 통화정책 운용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통화정책결정회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한 국내외 정책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하였다. 의결문의 경우 정책결정 배경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새로 추가하였고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도 보다 상세히 기술하였다.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개별 견해를 일부 제시하면서 정책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2022년 7월부터는 대외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기자간담회 모두발언도 영문으로 공개하기 시작하였다<sup>57)</sup>.

정책 및 업무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대외 커뮤니케이션

패널을 200명 수준으로 관리하고 학계, 연구소, 금융기관, 기업 및 산업계 등 구성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외 커뮤니케이션 패널을 통해 통화정책방향 결정, 주요 보고서, 정책 및 업무 운영 등에 대한 외부의견을 시의성 있게 수렴하여 정책 수립과 업무개선에 반영하였다.

금융통화위원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한은금융강좌」에서 강연을 실시<sup>58)</sup>하는 한편 한국은행이 개최하는 국제 컨퍼런스<sup>59)</sup> 및 한국경제학회, 한국금융학회,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개최하는 금융경제 포럼, 세미나에 발표자 또는 토론 패널로 참가하는 등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금융통화위원들은 주요국 중앙은행 임원 및 국제금융계 인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국의 통화정책 방향 및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등 해외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이 밖에도 기아차 생산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을 방문하여 지역 경제 현안과 주력산업의 업황 및 경쟁력 관련 이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경제 전문가 및 언론사와의 면담, 인터뷰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벌였다.

56) 자세한 내용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6월, 2022년 12월.

57) 한국은행 영문 홈페이지에 의결문과 함께 게재하고 있다.

58) 7월 27일 서영경 위원이 「통화정책 기조변화 배경과 리스크 요인」을 주제로, 11월 11일 박기영 위원이 「기대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59) 6월 2~3일 개최한 「BOK 국제컨퍼런스」, 11월 11일 개최한 「BOK-한국경제학회 국제컨퍼런스」 등이 있다.

## QR BOX



## QR 1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웹페이지



## QR 2

한국의 통화정책  
(2017)



## QR 3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2022년 6월)



## QR 4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2022년 12월)



## QR 5

한국은행 영문 의결문  
및 기자회견회 모두발언  
웹페이지



## QR 6

서영경 위원, 「통화정책  
기조변화 배경과 리스크  
요인」



## QR 7

박기영 위원, 「기대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 3. 금융안정<sup>60)</sup>

### 금융안정상황 점검<sup>61)</sup>

#### 가. 거시건전성 분석 및 평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등 금융안정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가계 및 기업의 부채 동향, 부동산시장 상황, 금융기관의 건전성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잠재위험요인을 조기경보(early warning)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그간 빠르게 진행되었던 주요국의 통화정책 긴축 등 금융경제 여건 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부문별로는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변화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공동검사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과 복원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 및 암호자산 등 금융시스템의 중장기적인 환경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연구도 지속하였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높은 물가상승 압력, 주요국의 통화긴축 강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양호한 손실흡수 능력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축적된 금융불균형 위험도 축소 조정되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지적인 단기금융시장의 불안과 자산가격 조정 움직임 등으로 취약부문의 부실 가능성 및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신용·유동성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하였다. 단기적인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sup>62)</sup>(FSI, Financial Stress Index)는 10월 위기단계 임계치(22.0)를 상회하였으나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조치 이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그간 누증되어 왔던 금융불균형도 완화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금융시스템 내 잠재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sup>63)</sup>(FVI, Financial Vulnerability Index)는 하락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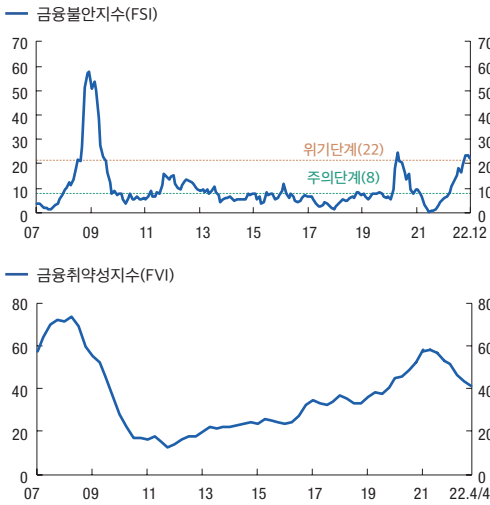
60) 2022년 중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금융안정보고서(반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6월호, 2022년 12월호.

61) 한국은행은 2017년부터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안정 상황을 매 분기 점검하는 금융안정회의를 연 4회 개최하고 있다. 또한 금융안정회의의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당일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6월 및 12월 회의에서는 금융안정보고서를 심의·의결한 당일에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62) 금융불안 관련 실물 및 금융부문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로, 금융안정 상황을 정상·주의·위기 단계로 구분한다. 주의 및 위기 단계 임계치는 '잡음/신호(noise-to-signal ratio)' 방식에 따라 각각 8과 22로 설정하였다.

63) 자산가격, 신용축적 등 금융불균형 정도와 금융기관 복원력과 관련된 39개 지표들을 표준화하여 산출한 종합지수(0-100, Min-Max 방식을 이용하여 역사적 최고치를 100, 최저치를 0으로 설정)로, 충격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측정을 통해 중장기적 시계의 금융안정 상황을 판단하는 지수이다. 동 지수의 상승(하락)은 금융불균형 심화(완화), 금융기관 복원력 약화(강화)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심화(완화)되어,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금융경제에 초래될 부정적 영향의 크기가 확대(축소) 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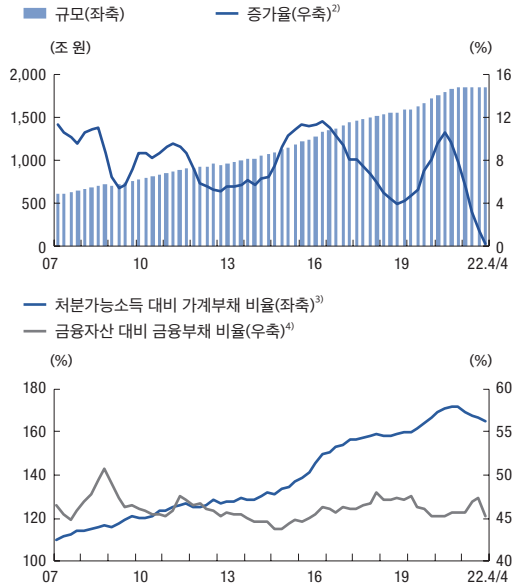
그림 II - 5. 금융불안지수(FSI) 및 금융취약성지수(FVI)



자료: 한국은행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을 나타내는 민간 신용<sup>64</sup>/명목GDP 비율은 2022년 말 225.1%(추정치)로 전년동기대비 5.7% 포인트 상승하였다. 기준금리 인상 및 대출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민간신용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명목GDP 성장세를 상회하면서 오름세를 보였다<sup>65</sup>.

가계 전반의 채무상환부담은 소득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하회하면서 소폭 개선되었으며, 최근 들어 자산 측면에서도 자산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더 크게 둔화되면서 부담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가계대출 연체율<sup>66</sup>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양호하였다.

그림 II - 6. 가계신용<sup>1)</sup>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전년동기대비  
3) 분기 자료는 추정치  
4) 자금순환통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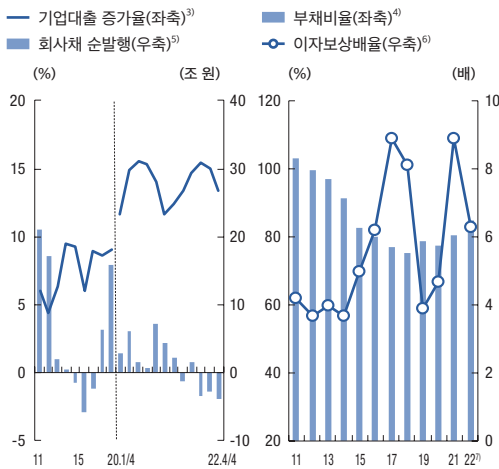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기업신용은 금리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 및 운전자금 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기업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총이자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저하되었다.

64) BCBS(2010)는 민간신용을 '가계 및 비금융기업에 공급하는 모든 형태의 채무(debt funds)'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민간신용 지표는 자금순환통계 기준 가계(대출금, 정부용자) 및 기업(대출금, 채권, 정부용자) 부채의 합을 이용하였다.

65) 2022년 중 민간신용 증가율은 6.5%였으며, 명목GDP 성장률(잠정 기준)은 3.8%였다.

66) 다만 금융기관(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1년 4/4분기 말 0.52%에서 2022년 3/4분기 말 0.60%로 소폭 상승전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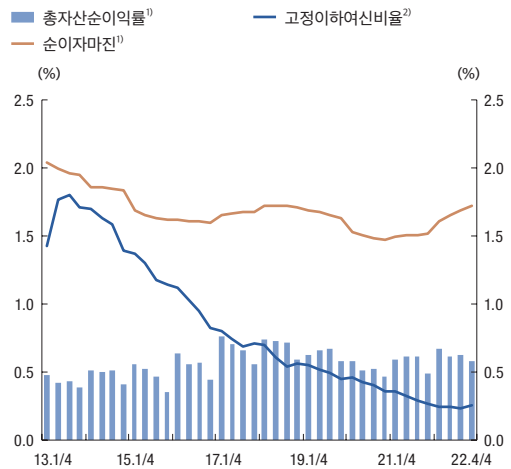
그림 II - 7. 기업신용<sup>1)</sup> 및 재무건전성<sup>2)</sup>

- 주: 1) 예금은행(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 기업(금융 및 보험업 제외)대출 기준  
 2) 사업보고서 공시 상장기업, 일부 비상장기업 등 총 2,392개 기업 대상  
 3) 전년동기대비 기준  
 4) 부채/자기자본, 기말기준  
 5) 2020년(점선) 이전은 연 중, 2020년부터는 분기 중 기준  
 6) 영업이익/총이자비용  
 7) 3/4분기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KIS-Value

일반은행은 기업대출 증가, 예금으로의 시중 자금 유입 등으로 자산 증가세가 큰 폭 확대되고 수익성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은 자산가격 하락, 은행권으로의 자금 이동 등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약화되었다. 한편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정부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모두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림 II - 8. 일반은행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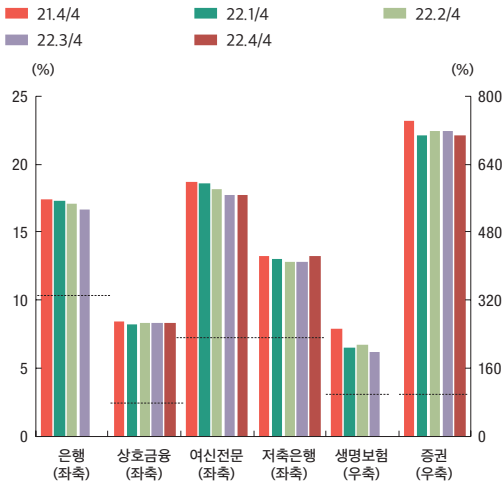
- 주: 1) 누적 분기 실적을 연율로 환산  
 2) 기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금융시스템의 대내외 충격 감내 능력을 나타내는 복원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은행의 경우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자본비율과 자금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이 모두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였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도 대부분의 업권에서 자본비율이 감독기준을 충족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다만 은행권으로의 자금유출, 부동산PF 부실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시장성 수신에 의존하는 증권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다소 높아졌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 기타 금융기관의 외화증권투자 축소 등으로 순대외채권이 감소해 소폭 저하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II-9. 금융기관<sup>1)</sup> 자본비율<sup>2)3)</sup>



주: 1) 은행은 일반은행 기준  
 2) 은행 총자본비율(감독기준 10.5%, D-SIB은 11.5%), 상호금융조합 순자본비율(2%, 새마을금고는 4%, 농협은 5%), 여신전문금융회사 조정자기자본비율(7%, 신용카드회사는 8%), 저축은행 BIS자기자본비율(7%,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은 8%),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100%), 증권회사 순자본비율(100%)  
 3) 점선은 감독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가 초래할 수 있는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부문별로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경제주체들과 연관된 위험요인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선제적인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최근 들어 진정되고 있으나 단기금융시장 불안 등에 취약한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유동성 상황과 부동산PF 등 자산시장과 연계된 금융의 부실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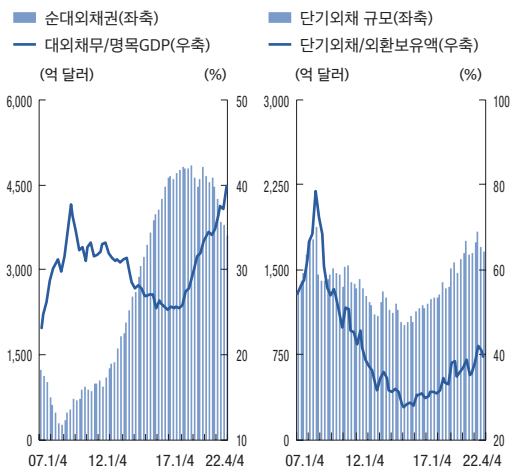
**공동검사 수행 및 국내외 금융안정 현안 논의 참여**

한국은행은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및 규제환경 변화 등으로 위험요인이 현재화될 가능성을 조기에 포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계기관 간 공조 기능을 크게 강화하였다.

먼저 특정 주제에 대하여 여러 은행을 동시에 검사하는 부문검사를 연중 3회 실시하고, 이를 통해 주요 은행의 가계 및 기업 대출 취급실태, 부실화 가능성 및 이에 대한 은행의 리스크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특히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 지속, 자산가격 조정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정상화 추진 등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외에도 개별 은행에 대한 종합 리스크 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그림 II-10.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sup>1)</sup> 및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sup>1)</sup>



주: 1) 분기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국내외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 지속, 금융·외환

은행의 경영상황, 대출 취급실태 및 리스크 요인, 한국은행 규정 준수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금융기관 경영실태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적극 수행하는 한편 효과적인 상시 감시 활동을 위해 기업대출 관련 미시데이터 기반을 확충하고 분석시스템도 개선하였다. 한편 금융기관 공동검사 결과를 정부 기관 및 금융감독원에 제공하여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사결과의 금융기관 앞 설명회를 통해 한국은행 검사업무 수행에 대한 피드백 강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표 II - 6.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회)

	2018	2019	2020	2021	2022
부문검사	3	4	-	2	3
개별은행 리스크 검사	2	2	2	4	2

자료: 한국은행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각종 국내외 금융안정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정책 공조를 지속하였다. 먼저 한국은행은 국내 유관기관 간 「거시경제금융회의<sup>67)</sup>」 등을 통해 정부 및 감독당국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10월 이후 PF-ABCP 및 증권회사 CP에 대한 신용경계감이 확산되는 등 단기금융시장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었을 당시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신속히 대응해 나갔다. 또한 이러한 협의체를 상시화하면서 국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국제금융기구의 글로벌 금융안정상황 평가 및 금융규제 수립 등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의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정기 평가, 비은행금융중개(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암호자산 등과 관련된 잠재 리스크 분석에도 함께 했다. 또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및 산하 회의체 참여를 통해 바젤Ⅲ 규제개혁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글로벌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규제안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금융의 디지털화 등 코로나 19 이후 변화하는 금융경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간 감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은행감독 실무그룹 회원기관으로서 SEACEN(South East Asian Central Bank) 회원국 은행감독국장 회의 및 주요국 감독당국이 주최하는 감독자협의회<sup>68)</sup>(Supervisory College)에 참석하여 글로벌 금융감독 현안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정책 공조를 지속하였다.

## 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등에 따른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

2022년 중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움직임 등으로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시장금리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었다.

67)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협의체로 2012년 7월에 신설되어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하며 의장은 기획재정부 차관이다.

68) 글로벌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을 위하여 본점 소재국과 진출국 금융당국자들이 참가하는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시장 안정화 조치 차원에서 2월 7일 2조 원, 4월 5일 2조 원, 9월 29일 3조 원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7조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3월, 4월 및 9월 중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 규모를 직전월 계획 대비 각각 1.3조 원, 2.2조 원, 1.5조 원 축소하였다. 또한 6월 중에는 발행계획 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1.5조 원(6월 13~30일 중, 4.5조 원 → 3.0조 원)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6월 13일)하였다.

### 안심전환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책

한국은행은 2022년 8월 안심전환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200억 원을 출자<sup>69)</sup>하였다. 동 출자는 금리 상승기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023년 말까지 전환 용도의 특례보증자리론이 원활히 공급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일정 부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안심전환대출 시행 및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증대에 따른 채권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RP매매 대상증권으로 한정되어 있던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한시적(2022년 9월~2025년 8월)으로 포함하기로 결

정(7월 28일)하였다.

### PF-ABCP 부도 사태 이후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한국은행은 PF-ABCP 부도 사태 이후 단기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지고 그 영향이 채권시장에도 파급됨에 따라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11월 1일)하였다.

우선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공 MBS, 특수은행채<sup>70)</sup> 이외에 은행채 및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에 3개월간 한시적으로 포함하였다<sup>71)</sup>. 동 조치로 국내은행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추가 고유동성자산 확보 가능 규모는 최대 29조 원 정도로 추정(2022년 9월 말 기준)하였다<sup>72)</sup>. 이와 함께 2023년 2월부터 예정되어 있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 비율 인상(70% → 80%) 일정을 3개월간 유예하였다<sup>73)</sup>.

또한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도모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RP매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필요시 RP매입을 한시적(2022년 11월~2023년 1월)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발표(10월 27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2022년 11~12월 중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

69) 한국은행은 2004년 공사 설립지원을 위해 3,100억 원, 2012년 고정금리부 가계대출 취급 활성화를 위해 1,350억 원, 2015년 제1차 안심전환대출 공급 지원을 위해 2,000억 원 등 총 6,450억 원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한 바 있다.

70) 특수은행채의 경우 기존에는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동 조치로 추가되었다.

71) 2023년 1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의 종료기한을 종전 1월 말에서 4월 말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하였다.

72) 국내 은행들은 한국은행에 은행채 등으로 담보를 납입함으로써 확보하게 되는 국채, 통안채 등의 고유동성자산을 통해 유동성 규제 비율 준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장외외환 파생거래 증거금 추가 납입 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73) 2023년 1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 비율 인상 일정을 2023년 8월로 3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의결하였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일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제5절 나. 감시 및 리스크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 1,300억 원 규모의 RP매입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연말을 앞둔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자금조달 우려 확산 및 단기금융시장 경색 심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권시장 안정펀드 출자 금융기관에 대해 각 개별기관 출

자금액의 50% 이내에서 RP매입 방식으로 최대 2조 5천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11월 28일)하였다. 이에 따라 12월 16일 동 출자기관에 대해 총 616억 원 규모의 RP매입을 실시하였다.

표 II - 7. 2022년 중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요약)

구 분	조치 시기	내용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등에 따른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 대응	■ 국고채 단순매입	2, 4, 9월 실시 - 총 7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	
	■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 축소	3, 4, 6, 9월 실시 - 3, 4, 9월 중 직전월 대비 각각 1.3조 원, 2.2조 원, 1.5조 원 축소 - 6월 중 당초 계획 대비 1.5조 원 축소	
안심전환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책	■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7월 발표, 8월 실시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200억 원 출자	
	■ 공개시장운영 단순매매 대상증권 확대	7월 발표, 2022년 9월 ~ 2025년 8월 적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한시적으로 포함(기존에는 RP매매 대상으로 한정)	
PF-ABCP 부도 사태 이후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 대상증권 확대 <sup>1)</sup>	대출적격 담보증권	-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sup>3)</sup> - 변경: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sup>3)</sup> , 은행채 <sup>4)</sup> , 9개 공공기관 <sup>5)</sup> 발행채권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sup>3)</sup> - 변경: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sup>3)</sup> , 은행채 <sup>4)</sup> , 9개 공공기관 <sup>5)</sup> 발행채권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	- 기존: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 - 변경: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sup>3)</sup> , 은행채 <sup>4)</sup> , 9개 공공기관 <sup>5)</sup> 발행채권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계획 연기	10월 발표	-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던 당초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70%→80%) 일정을 3개월(2023년 2월 1일→ 2023년 5월 1일)간 유예 <sup>6)</sup>
	■ 한시적 RP매입	10월 발표, 2022년 11월 ~ 2023년 1월 실시	- 증권회사, 증권금융 등에 대하여 필요시 RP매입을 실시 (2022년 11~12월 중 총 12조 1,300억 원 실시)
	■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 금융기관에 대한 RP매입	11월 발표, 12월 실시	-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 금융기관에 대해 RP매입 실시 (2022년 12월 중 총 616억 원 실시)

주: 1) 추가된 증권은 밑줄로 표시

2) 2023년 1월 동 조치를 3개월 연장(종료기한: 2023년 1월 31일 → 2023년 4월 30일)

3)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4) 농협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

5)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예금보험공사

6) 2023년 1월 동 조치를 3개월간 추가 연기(인상 일정: 2023년 5월 1일 → 2023년 8월 1일)

자료: 한국은행

## 다. 외환시장 안정조치

### 국민연금과의 스왑거래 실시

한국은행과 정부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수급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연금과 2022년 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로 외환스왑거래(만기 6개월 또는 1년)를 실시하기로 9월 23일 합의하였다. 이러한 스왑거래를 통해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 자금을 거래상대방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은 동 한도 내에서 외환스왑거래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가 완화되면서 외환시장의 수급이 안정화<sup>74)</sup>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 라. 중층적 금융안전망 확충

### 아랍에미리트와의 통화스왑계약 연장

글로벌 금융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중층적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왔다. 2022년 4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 United Arab Emirates) 중앙은행과 200억 디

르함/6.1조 원(약 54억 달러 상당) 규모의 통화스왑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다. UAE와의 통화스왑은 양국 간의 교역 증진과 금융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역내 금융안전망 실효성 제고

한국은행은 ASEAN+3 국가들의 다자간 통화스왑협정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sup>75)</sup>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금융안전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제3국의 역내통화 자금지원 절차를 마련하여(2023년 1월 발효)<sup>76)</sup> 유사시 역내통화를 통한 자금지원이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CMIM-PL<sup>77)</sup>의 갱신 허용기준을 완화하여 자금지원 절차를 개선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은 실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대비한 제13차 CMIM 모의훈련<sup>78)</sup>에 참여하여 역내 금융위기 발생 시 회원국 간 자금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점검하였다.

74) 정부는 외환시장 수급의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의 스왑거래 외에도 조선업체의 선물환 매도를 지원하고, 국민연금, 공제회 등 공적 기관투자자들이 환헤지를 늘리거나 신규 해외투자의 속도를 조절하도록 유도하였다.

75) ASEAN+3 국가는 CMI의 양자간 스왑계약(bilateral swap agreement)의 위기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10년 3월 CMI를 다자화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를 출범시켰다.

76) 2021년에 자금지원국이 미달려와 외에 자국통화(역내통화)로도 자금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국통화국의 역내통화 자금지원 절차를 마련하였고, 2022년 중에는 제3국의 역내통화 자금지원 절차를 논의하여왔다.

77) CMIM의 자금지원 제도는 잠재적 위기 상황에서의 위기에방 제도인 CMIM-PL(CMIM Precautionary Line)과 실제 위기 발생 시의 위기해결 제도인 CMIM-SF(CMIM Stability Facility)로 구성되어 있다.

78) 2022년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실시되었고, 금번 제13차 모의훈련은 IMF 非연계대출을 IMF 연계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을 주로 테스트하였다.

표 II - 8. 우리나라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

구분	체결 국가	규모 (미 달러 <sup>1)</sup> 기준)	최근 체결 연장일	만기
양자간 통화 스왑	캐나다	사전한도 없음	2017년 11월	없음
	중국	4,000억 위안/70조 원 (약 590억 달러 상당)	2020년 10월	2025년 10월
	스위스	100억 프랑/11.2조 원 (약 106억 달러 상당)	2021년 3월	2026년 3월
	인도네시아	115조 루피아/10.7조 원 (약 100억 달러 상당)	2020년 3월	2023년 3월
	호주	120억 호주달러/9.6조 원 (약 81억 달러 상당)	2020년 2월	2023년 2월
	UAE	200억 디르함/6.1조 원 (약 54억 달러 상당)	2022년 4월	2027년 4월
	말레이시아	150억 링깃/5조 원 (약 47억 달러 상당)	2020년 2월	2023년 2월
	튀르키예	175억 리라/2.3조 원 (약 20억 달러 상당)	2021년 8월	2024년 8월
CMIM 지역 금융 협정	ASEAN+3 13개국 및 홍콩	384억 달러 <sup>2)</sup>	2014년 7월	—

주: 1) 최초 또는 규모 확대 체결 시 환율기준

2) CMIM 총 재원은 2,400억 달러이며 우리나라의 수혜 및 분담 규모는 각각 384억 달러(16%)

자료: 한국은행

## 마.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비상대응체제 가동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여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금융·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예상치를 상회한 미 물가지표 발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시기에는 「통화금융대책반<sup>79)</sup>」에서 「시장상황 점검 회의」 등을 개최하여 금리, 주가, 환율 등 가격변수의 움직임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아울러 시장의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안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였다.

### QR BOX



#### QR 1

금융안정보고서  
웹페이지

79) 부총재를 반장으로 하여 통화정책 및 금융·외환시장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 4. 발권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화폐(은행권 및 주화) 발행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후 권화종별 화폐수급 여건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여 화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였다. 또한 7종의 기념주화를 국민의 높은 호응 속에 발행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위조지폐 유통방지 홍보, 화폐위조범 검거 유공자 선정·포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 밖에 깨끗한 화폐가 시중에 유통되도록 손상된 화폐를 꾸준히 회수하여 폐기하였으며 금융기관, 한국조폐공사 등 관계기관들과 원활히 협력하여 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였다.

### 가. 화폐 발행

#### 화폐수요에 대응

2022년 중 한국은행은 25조 7,480억 원의 화폐를 발행하고 18조 4,576억 원의 화폐를 환수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말 화폐 발행잔액은 2021년 말보다 소폭 증가(4.4%)한 174조 8,623억 원을 기록하였다. 권화종별로는 오만원권의 발행잔액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만원권과 주화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II - 9. 화폐발행·환수 및 발행잔액<sup>1)</sup>

(억 원)

	2022			2022년 말 발행 잔액
	발행 (A)	환수 (B)	순발행 (A-B)	
은행권 <sup>2)</sup>	257,195	184,280	72,915	1,723,923 (4.4)
오만원권	200,642	113,346	87,296	1,529,407 (6.1)
만원권	52,344	66,813	-14,469	163,751 (-8.1)
오천원권	2,052	2,003	49	14,390 (0.3)
천원권	2,156	2,117	39	16,195 (0.2)
주 화 <sup>2)</sup>	285	296	-11	24,699 (-0.0)
합 계	257,480	184,576	72,904	1,748,623 (4.4)

주: 1) ( ) 내는 2021년말 대비 증감률(%)

2) 오백원권 이하 은행권, 오원화 이하 주화, 기념화폐 포함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납품한 화폐는 은행권 7억 1,000만 장, 주화 8,270만 장 등 총 7억 9,270만 장으로 2021년 대비 7.4% 감소하였다. 은행권은 오만원권을 중심으로 6.6% 줄어들었고, 주화는 전반적인 수요 감소가 지속되며 14.1% 감소하였다. 이들 제조화폐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9조 9,6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9% 감소하였다.

표 II - 10. 화폐 제조규모<sup>1)</sup>

	장 수(100만 장)		금 액(억 원)	
	2021	2022	2021	2022
은행권 <sup>2)</sup>	760.0	710.0	273,200	199,600
	(20.6)	(-6.6)	(56.5)	(-26.9)
주 화 <sup>2)</sup>	96.3	82.7	52	14
	(-31.4)	(-14.1)	(-31.5)	(-73.1)
합 계	856.3	792.7	273,252	199,614
	(11.1)	(-7.4)	(56.4)	(-26.9)

주: 1) ( ) 내는 전년 대비 증감률(%)

2) 기념화폐 제외

자료: 한국은행

## 기념주화 7종 발행

2022년 중 한국은행은 총 3회에 걸쳐 기념주화를 발행하였다.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 3종을 2월 22일에 발행하였다.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는 우리나라의 22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발행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념주화 2종을 10월 6일에 발행하였으며,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경축하기 위해 「누리호 발사 성공」 기념주화 2종을 12월 20일에 발행하였다.

그림 II - 11. 2022년 발행 기념주화

화종	도안	소재·규격
한국의 국립공원 (가야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 99.9%</li> <li>• 지름 35mm</li> <li>• 무게 23.0g</li> </ul>
한국의 국립공원 (변산반도)		
한국의 국립공원 (오대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은화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 99.9%</li> <li>• 지름 33mm</li> <li>• 무게 15.6g</li> </ul>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은화 II)		
누리호 발사 성공 (은화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 99.9%</li> <li>• 지름 33mm</li> <li>• 무게 15.6g</li> </ul>
누리호 발사 성공 (은화 II)		

자료: 한국은행

## 나. 화폐 유통

### 위조지폐 유통방지 등 홍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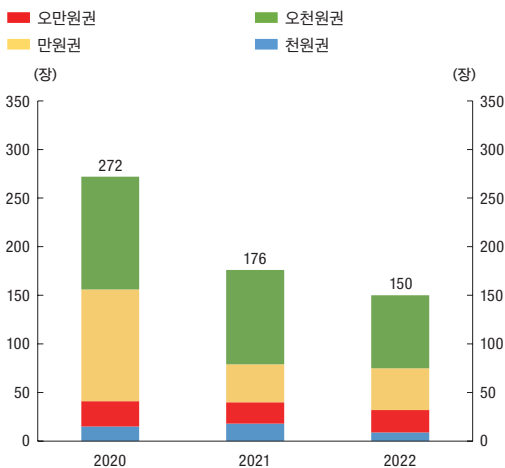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위조지폐의 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소셜미디어(한국은행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를 통한 퀴즈이벤트 실시, 위조지폐 유통방지 동영상<sup>80)</sup> 신규 제작 및 이를 활용한

80) 1편 위조지폐 식별요령, 2편 위조지폐 발견시 행동요령, 3편 화폐도안 이용기준.

매체광고(버스, KTX, 지하철, 옥외전광판, 유튜브) 실시, 리플릿 배포, 알기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 배포<sup>81)</sup>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밖에 화폐 위조범 검거 등에 기여한 5개 경찰서에 대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포상을 수여하였다.

2022년 중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150장으로 2021년(176장)보다 26장 감소하여 관련 통계를 공표(1998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최근 비현금지급수단 이용 활성화에 따른 대면 상거래 축소, CCTV 설치 확대 등에 따른 위조범 조기 검거, 국민들의 위폐식별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은행의 홍보활동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II - 12. 위조지폐 발견장수



자료: 한국은행

아울러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위조화폐 유통 방지, 동전 다시쓰기, 돈 깨끗이 쓰기를 주제로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9회차)을 개최하여 247편의 응모작 가운데 10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sup>82)</sup>.

그림 II - 13.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수상자 시상 (2022년 11월 9일)



자료: 한국은행

### 유통화폐 청결도 개선 노력

한국은행은 금융기관과 개인으로부터 환수한 화폐 중 훼손, 오염 등으로 재발행하기 부적합한 화폐를 폐기하여 유통화폐의 청결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였다. 2022년 중 폐기한 손상 화폐는 2조 6,414억 원으로 장수 기준으로는 4억 1,268만 장에 달하였다. 화폐 종류별로는 은행권이 2조 6,333억 원(3억 5,671만 장), 주화가 82억 원(5,596만 장)이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돈 깨끗이 쓰기」 동영상 배포 등 PC와 모바일,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한국은행은 상거래 시 지급결제수단으로서 현금사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홍보 활동을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음식점이나 대형마트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현금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해

81) 알기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 소개.

82)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022년 한국은행은 주요 도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및 편의점 POS 화면 포스터 게시, 유튜브 동영상 송출 등을 통해 현금사용 선택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다. 2022년 시내버스 현금승차 폐지 확산 움직임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시민들을 위하여 현금승차와 유사한 정도의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현금 없는 사회 진전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지급 수단으로서 현금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그림 II - 14.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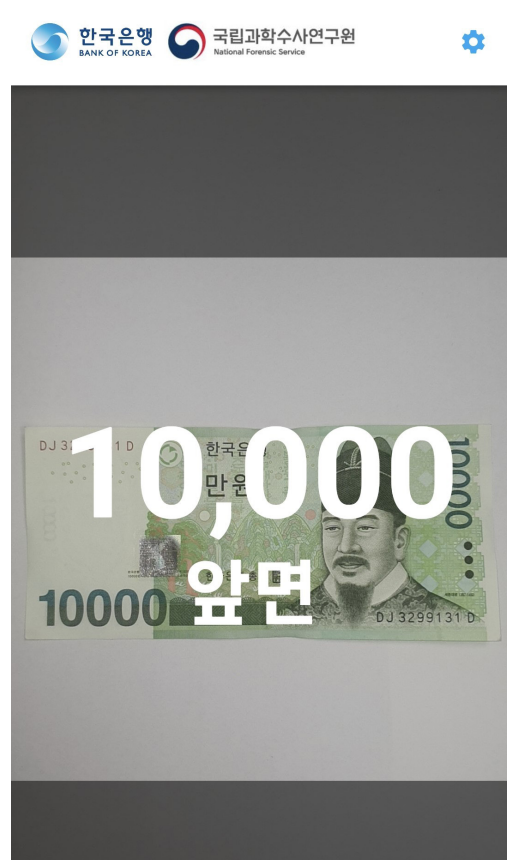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시각장애인용 한국은행권 액면식별 도우미 앱 출시

한국은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공동으로 시각장애인용 「한국은행권 액면식별 도우미」 앱을 개발하여 제42회 장애인의 날(4.20일)에 맞추어 출시하였다. 동 앱은 시각장애인들의 은행권 액면식별을 보조하는 모바일 앱으로 앱 실행 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은행권에 가져다 대면 음성과 진동으로 액면금액을 안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행권 액면식별 도우미」 앱의 배포로 그간 은행권 액면식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국내 시각장애인들의 현금사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II - 15. 한국은행권 액면식별 도우미 앱



자료: 한국은행

## 다. 대외 협력

한국은행은 관세청, 경찰청, 한국조폐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위조지폐의 발견 동향 및 특징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계속하였다. 또한 은행연합회, 국가정보원, 시중은행 등의 위폐전문가들로 구성된 위폐전문가그룹과 함께 각 기관별 현안사항 공유와 동시에 위조지폐 피해 사례 확인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위조지폐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위조지폐의 제작 방법과 수준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또한 국내 화폐유통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를 신규로 발족(8월) 하였다. 10월에는 발족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화폐수급 동향, 코로나19가 국내 화폐유통시스템에 미친 영향, 화폐유통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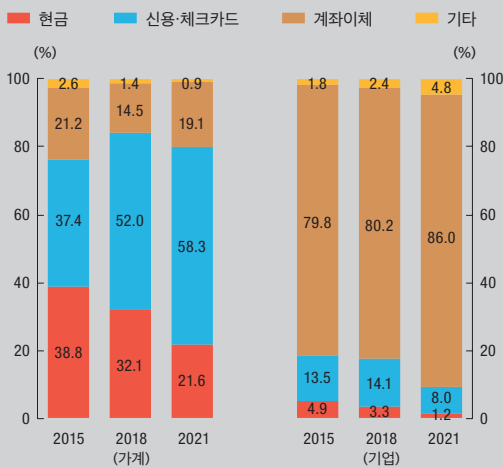


## 참고 II-1.

### 2021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결과

한국은행은 국민의 현금사용에 관한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현금사용행태 조사<sup>83)</sup>를 실시하였다. 우선 현금사용을 보면 가계와 기업 모두 비현금지급수단 이용 확대 등으로 2018년에 비해 현금지출규모<sup>84)</sup>가 줄어들면서 총 지출액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다. 특히 가계의 경우 현금지출 비중이 21.6%로 신용·체크카드(58.3%)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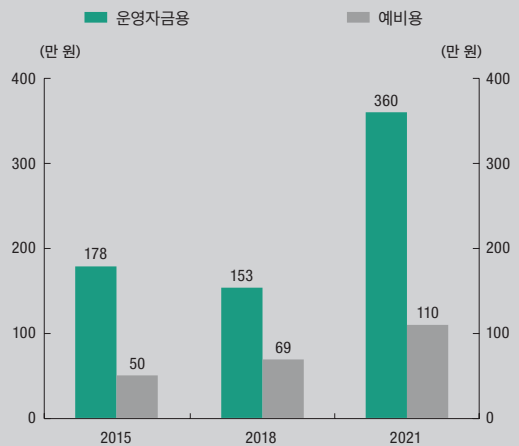
그림 II - 16. 지급수단별 지출액 비중<sup>1)</sup>



주: 1) 월평균 총지출액에서 각 지급수단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

현금보유는 예비용 현금 수요<sup>85)</sup> 확대 등으로 증가하였다. 비상시에 대비하여 예비용 현금을 보유한 가구의 비중이 큰 폭 상승(2018년 23.3% → 2021년 31.4%)하였으며, 기업의 경우 일상 운영자금과 함께 예비용 현금보유가 모두 늘어나면서 평균 현금보유액이 2018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심화, 낮은 금리 수준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 - 17. 기업의 용도별 현금보유액<sup>1)</sup>



주: 1) 월평균 보유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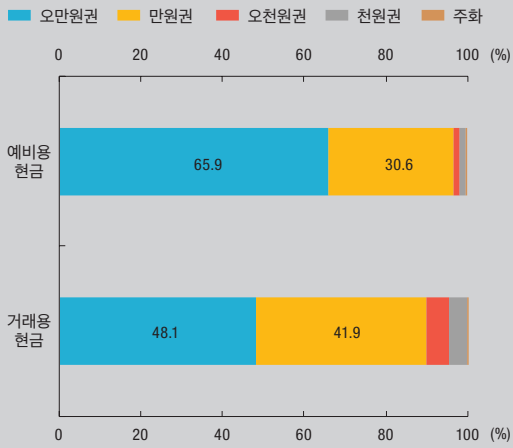
한편 화폐 종류별로는 5만원권과 만원권 위주로 보유 및 사용되고 있으며 주화는 상당부분 퇴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보유한 현금의 권종별 비중을 보면 거래용의 경우 5만원권과 만원권이 각각 48.1% 41.9%를 차지하였으며 예비용은 5만원권이 65.9%를 차지하였다. 주화의 경우에는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주화중 일상거래에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주화의 비중이 76.9%(금액기준)에 달하였다.

83) 3년 단위의 정례 조사로 2015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하였다.

84) 가계 및 기업의 월평균 현금지출액은 2018년 각각 64만 원, 2,906만 원에서 2021년 51만 원, 912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85) 거래용 현금이란 일상적인 거래를 위해 현재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예비용 현금이란 현재 소지하고 있는 돈 이외에 비상시에 대비하여 집,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의미한다.

그림 II - 18. 가계의 화폐 종류별 현금 보유비중 (금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 QR BOX



## QR 1

위조지폐 유통방지 동영상  
- 제1편 위조지폐 식별요령



## QR 2

위조지폐 유통방지 동영상  
- 제2편 위조지폐 발견시  
행동요령



## QR 3

위조지폐 유통방지 동영상  
- 제3편 화폐도안 이용기준



## QR 4

알기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 소개



## QR 5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 5. 지급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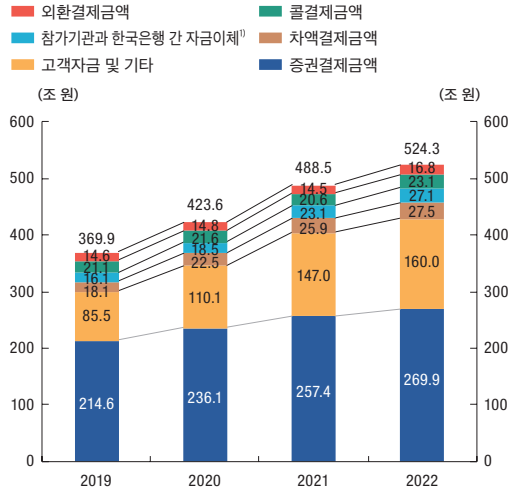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흐름 속에서 지급결제 인프라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일중 일시적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자금결제를 도모하였다. 또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sup>86)</sup>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등을 통해 지급결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가. 한은금융망 운영

#### 원화자금 결제 동향

2022년 중 한은금융망의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일평균 524.3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7.3% 증가하였다. 결제자금 구분별로는 증권거래자금 결제금액이 기관 간 RP 등을 중심으로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 간 차액결제금액은 인터넷뱅킹 등 금융공동망을 중심으로 전년에 비해 6.1% 증가하였다. 콜거래자금 결제금액은 전년대비 11.9% 증가하였다.

그림 II - 19. 한은금융망 결제금액 (일평균)



주: 1) 국공채 등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자료: 한국은행

####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한국은행은 일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결제지연이 한은금융망 전반의 결제리스크로 확산될 만약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참가기관에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을 공급하였다. 2022년 중 일시결제부족자금 공급규모는 일평균 3조 247억 원으로 전년보다 13.4%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 일중당좌대출<sup>87)</sup> 지원금액은 8,811억 원으로 39.1% 증가한 반면, 일중RP<sup>88)</sup> 지원금액은 2조 1,436억 원으로 25.0% 감소하였다.

86)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의미한다.

87) 금융기관들의 일시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당일 상황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대출이다.

88)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참가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를 조기화하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당일 상황을 조건으로 RP방식을 이용해 일시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표 II - 11.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규모 (일평균)

(십억 원, %)

	2020	2021	2022	증감률 <sup>2)</sup>
일중당좌대출 <sup>1)</sup>	603.0	633.2	881.1	39.1
일중RP	2,883.2	2,858.9	2,143.6	-25.0
계	3,486.2	3,492.1	3,024.7	-13.4

주: 1) 일중당좌대출 이용금액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한 순일중당좌대출 기준

2) 2021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나. 감시 및 리스크 관리

###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평가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sup>89)</sup>에 관한 원칙<sup>90)</sup>(PFMI,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등 지급결제분야의 국제기준<sup>91)</sup>에 의거하여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22년 중에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다. 평가결과 한국거래소는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종합적 리스크 관리체계, 운영 리스크 및 사이버복원력 관리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을 권고하였다. 한국예탁결제원 또한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시장데이터 공개, 운영리스크 관리, 신용리스크 관리 등 일부 개선

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을 권고하였다

### 금융기관 지급결제부문에 대한 공동검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관련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2개 국내은행과 1개<sup>92)</sup>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해당 금융기관들은 일중 유동성 관리, 자금이체업무 등 지급결제업무를 대체로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산시스템 장애, 재해, 테러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자금이체 수행절차 및 IT시스템 업무지속계획을 개선하고 CMA 관련 리스크관리<sup>93)</sup>를 강화하는 한편, 만약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여 조기경보 시스템 및 스트레스 테스트 등 대응체계를 일부 보완하도록 권고하였다.

###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안정적 운영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의 유동성 상황 악화에 대응하여 2020년 4월 차액결제시스템 참가은행의 담보증권 제공 비율<sup>94)</sup>을 한시적으로 70%에서 50%로 인하한 바 있는데 2022년 2월 1일부터 다시 동 비율을 70%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2023년 2월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2022년 10월 이후 단

89) 경제주체들의 일상적인 지급이나 금융상품 거래를 청산, 결제 또는 기록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결제시스템, 중앙거래당사자(CCP), 중앙예탁기관(CSD), 증권결제시스템 및 거래정보저장소(TR)로 구성된다.

9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인프라 확충과 금융시장인프라의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 정비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공동으로 2012년 4월에 제정·발표한 지급결제분야의 국제기준이다.

91) CPMI-IOSCO는 「PFMI」외에도 「FMI 사이버복원력 지침」(2016년 6월), 「FMI 손실복구지침」(2017년 7월), 「CCP 복원력 추가지침」(2017년 7월) 등 국제기준을 추가 제정하였다.

92) 한국은행은 연간 3회 정도 실시해 오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를 코로나19의 확산을 감안하여 2022년 중 1회로 축소하는 대신 이들 회사의 결제리스크 관리 실태 등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였다.

93) RP형 CMA(Cash Management Account)에 동일한 발행채권 보유 한도 등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94)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는 신용리스크를 완전히(100%)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담보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기금융시장이 재차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냄에 따라 시장안정<sup>95)</sup>을 위해 당초 2023년 2월부터 예정되어 있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 비율 인상 일정을 3개월간 유예하였다. 아울러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은행채 및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 범위에 추가 포함하였다<sup>96)</sup>.

표 II - 12.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 비율 인상 일정<sup>1)</sup>

		(%)					
기존		23년 2월	23년 5월	24년 2월	24년 5월	25년 2월	25년 5월
변경전	70	80	80	90	90	100	100
변경후		70	80	80	90	90	100

주: 1) 2023년 10월 발표 기준, 2023년 1월 동 조치를 3개월간 연기(80% 인상시점: 2023년 5월→2023년 8월)

자료: 한국은행

## 다. 지급결제제도 개선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연구 강화

한국은행은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관련한 제반 연구를 강화하였다.

우선, 기술적 기반 확보를 위해 CBDC 모의

실험 연구(2021년 8월~2022년 6월)를 진행하였다. 2021년 중 클라우드에 가상의 실험환경을 조성하고 CBDC의 기본기능이 정상 작동함을 확인한 데 이어<sup>97)</sup>, 2022년 중에는 오프라인 결제<sup>98)</sup>, 디지털자산 거래, 국가 간 송금 등 확장 기능을 구현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과 같은 새로운 IT기술의 적용 가능성도 점검하였다.<sup>99)</sup> 또한, 모의실험 연구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15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추가 실험<sup>100)</sup>을 진행하고 있다<sup>101)</sup>.

다음으로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다양한 제도적 이슈 및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였다. 우선 CBDC 도입과 관련한 설계 및 운영 방식, 예상 파급효과 등의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보고서<sup>102)</sup>를 발간하였다. 이에 더해, 학계 등과 공동으로 CBDC 도입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 한국은행의 주요 책무 및 역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동 결과를 「경제분석 CBDC 특별호」(2022년 12월)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CBDC 정책연구 심포지움」(2022년 10월) 및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2022년 11월)<sup>103)</sup> 등을 통해 활발히 공유하는 등 대외 커뮤니케이션도 확대하였다. 이 외에도 CBDC 관련

95) 한국은행의 여타 시장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내용은 '제2장 제3절 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96) 2023년 1월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동 조치를 3개월간 추가 연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담보증권 제공 비율 인상 일정을 조정하였다.

97) 기본기능은 CBDC의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를 말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 1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2022년 1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98) 송금인과 수취인의 전산기기(모바일기기, IC카드 등)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CBDC를 이용하여 송금 및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한다.

99) CBDC 모의실험 연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2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2022년 11월)을 참고하기 바란다.

100)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실험 시스템(가상환경)과 금융기관의 테스트 서버를 연계하여 시스템의 기능·보안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실험을 말한다.

101) 참고로 한국은행은 현재까지 CBDC 도입 여부 및 설계방식을 결정한 바 없으며, 금본 모의실험 연구사업은 특정 설계방식(분산원장, 혼합형)에 대한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실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최종 설계방식은 동 실험들의 내용과 다를 수 있다.

102) 자세한 내용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2022년 1월)을 참고하기 바란다.

103)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유튜브 채널의 영상과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수록된 전자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한국은행

대의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 연구 진행상황을 공유하며 상호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우리 금융경제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CBDC 설계모델 및 제도를 탐색하기 위해 기술·제도·파급효과 측면에서의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CBDC 도입 관련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유관기관, 민간부문,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CBDC의 다양한 활용 사례에 대해서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RTGS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기반 마련 노력

우리나라는 2001년 세계 최초로 신속자금이

체시스템<sup>104)</sup>을 구축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은금융망을 통한 동 시스템의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가 신용리스크를 내포하는 이연차액결제(DNS, Deferred Net Settlement) 방식<sup>105)</sup>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신용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실시간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방식<sup>106)</sup>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sup>107)</sup>. 한편 최근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신규 구축한 미국, EU 등 주요국은 대부분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 송금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서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간 연계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신용리스크 축소 등 결제안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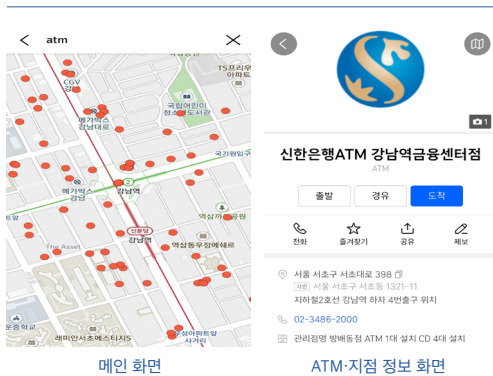
104) 지급인의 지급지와 수취인의 자금수취가 동시에 또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이체 서비스를 연중 24시간 제공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의미한다.  
 105) 수취인(고객)에게 자금을 선지급한 후 일정 기간 중 이루어진 자금이체에 대하여 참가기관 간 주고받을 금액을 모아서 상계 처리한 후 차액을 결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106) 자금이체 건별로 참가기관 간 결제를 실시간 완결시키는 방식을 의미한다.  
 107) DNS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은 참가기관 간 결제가 완결되기 전까지 수취기관이 지급기관의 파산 등으로 자금을 수취하지 못하는 신용리스크에 노출되나, RTGS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은 자금이체 건별로 참가기관 간 결제를 실시간 처리함에 따라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으로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금융맵 서비스 제공채널 확대를 통한 금융포용 확대 노력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sup>108)</sup>를 통해 금융권과 공동으로 국민들이 현금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금 접근 인프라인 ATM의 활용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12월 ATM 위치 및 장애인 지원 기능 등의 부가정보를 모바일 앱 형식으로 제공해주는 금융맵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2022년 11월부터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대중적인 지도플랫폼을 통해 금융맵 서비스가 제공하는 ATM 위치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림 II - 21. 금융맵 서비스 DB와 연계 후 민간 지도플랫폼 정보 제공 (예시)



자료: 티맵

## 라. 지급결제 관련 국제협력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제정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회원으로서 글로벌 주요 지급결제 현안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국가 간 지급서비스(cross-border payments)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CPMI 실무 작업에 참가하며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계획<sup>109)</sup>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CPMI와 IOSCO가 주관하는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sup>110)</sup> 회원으로서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PFMI 적용 방안 등의 이슈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동 논의의 진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의견 개진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글로벌 감시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관련 논의 심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국의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 도입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2022년 8월 EU의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 전문을 번역하여 책자로 발간<sup>111)</sup>하였으며 2022년 12월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sup>112)</sup>을 발간하였다.

108) 1984년 9월 '금융전산위원회(의장: 한국은행 총재)'로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CD공동망, 타행간공동망 등 주요 금융공동망 구축을 주도하였고 2009년 11월 현재의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로 개편되었다. 2022년말 현재 한국은행, 금융기관, 유관기관 등 총 3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산하에 금융정보화 공동추진사업의 선정, 금융표준화 등의 사전 심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두고 있다.

109) 자세한 내용은 「G20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2021년 3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110) FMI에 대한 감시·규제 등 공동의 이슈를 효율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설립된 회의체로 통상 연 2~3회 정례 회의를 개최한다.

111) MiCA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단독 입법안으로서 블록체인의 육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유의하면서 이용자 및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2022년 8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112)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또한 한국은행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산하 금융서비스 부문 기술위원회(TC68)의 국내 전문위원회 간사기관으로서 ISO/TC68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금융상품 분류에 관한 표준을 비롯한 총 55개 표준 현황과 19개 신규 표준의 제·개정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추진 중인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표준」 및 「제3자 결제서비스 정보보호 표준」의 국제표준화 작업 진행 경과를 참가국들과 공유하였다.

## QR BOX



### QR 1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1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



### QR 2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2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



### QR 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



### QR 4

2022년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  
영상



### QR 5

2022년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  
e-book



### QR 6

G20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QR 7

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



### QR 8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 6. 외환 및 국제협력

### 가. 외국환

#### 외환시장 안정 노력

2022년 중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기대 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국내 외환수급 측면에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거주자 해외투자 상당폭 지속 등으로 미 달러화 수요가 우위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하여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거래<sup>113)</sup> 등 외환수급 안정화 대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장에서는 기대가 쏠리고 불안정성이 심할 경우 외환시장 안정 조치를 적시에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환당국의 미 달러화 순매도 규모는 외환시장의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2/4~3/4분기 중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외환당국의 노력으로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쏠림이 완화되며 원/달러 환율의 상승압력이 경감되었다.

표 II - 13.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sup>1)</sup>

(억 달러)

시기	금액
21년 1/4분기	-1.03
21년 2/4분기	0.00
21년 3/4분기	-71.42
21년 4/4분기	-68.85
22년 1/4분기	-83.11
22년 2/4분기	-154.09
22년 3/4분기	-175.43

주: 1) 해당기간 중 총 매수에서 총 매도를 차감한 순거래 내역  
자료: 한국은행

#### 외환시장 개선 노력 지속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외환시장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장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다.

우선 3월에는 원/달러 현물환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방향 거래실적이 우수한 6개 은행을 선도은행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외환당국과 선도은행이 참여하는 외환시장 발전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외환시장 발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였다.

아울러 외환시장 참가자들과 함께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인가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시장 인프라 확충 등 시장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히 전개하였다<sup>114)</sup>.

#### 외환거래분야 제도 개선

한국은행은 2021년 11월 본부에 도입한 온라인 외환심사시스템<sup>115)</sup>을 전 지역본부로 확장도

113)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제3절 다. 외환시장 안정조치'를 참조하기 바란다.

114)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23년 2월 7일 외환당국은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입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과 대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고필증 위변조 방지 기능, 이용자의 온라인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 기능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 개선 노력을 지속하였다.

## 나. 외화자산 운용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최종 대외지급 준비자산인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데 있어 안전성과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가운데 수익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은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2022년 말 현재 A등급 이상 채권이 96.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불확실성 확대 시 국제금융시장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위주로 운용함으로써 외환보유액의 유동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통화 및 상품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수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외환보유액 규모 및 구성

2022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32억 달러로 2021년 말 대비 400억 달러 감소하였다.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환(유가증권, 예치금 등)이 3,990억 달러로 2021년 말 대비 393억 달러 감소한 가운데 SDR과 IMF 포지션은 각각 148억 달러, 45억 달러 수준이었다. 금은 48억 달러로 2021년 말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II - 14. 외환보유액 구성 내역(기말 기준)

(백만 달러)

	2020	2021(A)	2022(B)	증감(B-A)
외환보유액	443,098	463,118	423,164	-39,955
외환	430,117	438,319	399,043	-39,276
SDR	3,371	15,370	14,836	-533
IMF	4,815	4,635	4,490	-145
금	4,795	4,795	4,795	-

자료: 한국은행

### 외화자산 구분 운용

한국은행은 운용목적에 따라 외화자산을 현금성자산과 투자자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투자자산의 경우 운용방식에 따라 직접투자자산과 위탁자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현금성자산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외화자금의 유출입이나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외화자금의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유지하면서 거래비용이 적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국채, 예치금 등의 단기금융상품으로 구성하고 있다.

자금 유출입 등으로 현금성자산의 규모가 상당폭 변동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자산과의 자금이관을 통해 자산간 규모를 조정하고 있다.

직접투자자산은 높은 수준의 유동성 확보와 안정적 수익 획득이 가능한 정부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및 자산유동화채 등 주요 국제통화로 발행된 장·단기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탁자산은 외부 전문성 활용, 투자방식의 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국내외 자산운용사와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위탁운용하고 있으며, 투자대상은 채권 및 주식이다.

## 유동성 확충에 중점을 두고 운용

2022년 중 국제금융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미 연준의 급격한 정책금리 인상,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외화자산 운용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금리는 크게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하락하고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면서 미달러화는 강세를 지속하였다.

다만 4/4분기 이후에는 경기둔화 우려, 인플레이션 속도 둔화 등으로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속도가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로 금리 상승폭이 축소되고 강세를 지속했던 미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되었다. 하락을 지속했던 주가도 위험회피 심리 약화, 중국의 코로나 방역정책 완화 등으로 반등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외화 유동성 적시 공급이 긴요해졌으며 이에 한국은행은 보유채권 매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였다. 이 과정에서 직접투자자산으로부터 현금성 자산으로의 자산이관이 빈번해지고 규모도 증가함에 따라 현금성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등 시장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동성 확충에 중점을 두어 외화자산을 운용하였다.

외화자산 구성에 있어서는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전년대비 확대되고 투자자산 내에서 직접투자자산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위탁자산 비중은 소폭 확대되었다. 2022년말 기준 한국은행 외화자산 중 현금성자산은 10.0%, 직접투자자산은 65.7%, 위탁자산은 24.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통화별로는 위험회피심리 강화,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미달러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미달러화의 비중이 전년대비 확대되었다.

상품별로는 예치금 비중과 유가증권 중 자산 유동화채 및 주식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반면 유가증권 중 정부채 및 회사채의 비중은 축소되었다.

표 II - 15. 외화자산<sup>1)</sup> 구성 내역(기말 기준)

	(% , %p)			
	2020	2021(A)	2022(B)	증감(B-A)
<b>1.자산별</b>				
현금성자산	5.1	5.2	10.0	4.8
투자자산				
직접투자자산	73.9	72.0	65.7	-6.3
위탁자산	21.0	22.8	24.3	1.5
<b>2.통화별</b>				
미달러화	67.7	68.3	72.0	3.7
기타통화	32.3	31.7	28.0	-3.7
<b>3.상품별</b>				
예치금	7.1	6.9	12.6	5.7
유가증권				
정부채	44.5	44.9	39.4	-5.5
정부기관채	14.4	14.1	14.1	0.0
회사채 <sup>2)</sup>	13.6	12.9	11.0	-1.9
자산유동화채	11.5	10.8	11.5	0.7
주식	8.9	10.4	11.4	1.0
계	100.0	100.0	100.0	-

주: 1) <표 II - 14>의 외환 중 한국은행 외화자산

2) 미 회사채 ETF 포함

자료: 한국은행

## 금리상승·달러화 강세에 대응한 헤지포지션 구축 등으로 수익성 방어

한국은행은 금리상승 등으로 외화자산 운용 수익률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외환시장 유동성 공급에 따른 포트폴리오 관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채 현·선물 매도, 환헤지 포지션 구축, 장단기 금리차 역전 확대에 대비한 전략 실시 등을 통해 시장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직접투자자산과 위탁자산 간 리밸런싱 제도 도입 및 회사채 ETF 투자 개시를 통해 위탁자산과 주식, 회사채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외화자산 배분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였다.

### 외화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

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외화자산 운용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다.

대외 리스크 증대에 대비한 외화자산운용 비상대응계획 및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지속함으로써 투자환경 변화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신용리스크 분석 모델 변경 등을 통해 외화자산 신용리스크를 보다 적절하게 분석하고 리스크지표 산출주기를 단축하는 등 리스크 관리의 유효성과 적시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투자한도 설정 및 투자현황 분석 등을 통해 시장 및 신용리스크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였으며 담보관리 대상기관 확대, 외자운용시스템 개선 추진, 업무자동화 확대 등을 통해 각종 리스크 경감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국내 금융기관 역량 제고 및 금융산업 발전 지원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 거래기관 및 위탁운용사로 국내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활용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 제고 및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2년 중에는 외화자산 직접운용 과정에서

5개 국내 증권사와 외화채권(38.4억달러) 매매 거래를 실시하였고 5개 국내 자산운용사에 중국 주식(5.9억달러), 선진국 주식(17.5억달러), 선진국 채권(7.0억달러) 일부를 위탁운용하였다<sup>116)</sup>. 선진국 채권 위탁운용의 경우 국내 금융사 위탁자산 범위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 1월부터 개시하였다.

한국은행은 매년 국내 위탁여건과 운용역량을 평가하면서 점진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위탁 규모를 상당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역량이 검증된 국내 운용사를 위탁대상기관에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시장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위탁펀드 운용전략을 기존의 패시브(passive) 방식에 액티브(active) 방식을 추가하는 등 전략의 다양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표 II - 16. 외화자산 운용 시 국내 금융기관 활용 현황

유형	상품	대상기관 <sup>1)</sup>	규모	개시시기
외화채권의 매매거래	정부채, 정부기 관채, 회사채	증권사 (5)	38.4억 달러 <sup>2)</sup>	2018년 1월
	중국 주식	자산운용사 (3)	5.9억 달러 <sup>3)</sup>	2012년 6월
주식·채권 위탁운용	선진국 주식	자산운용사 (4)	17.5억 달러 <sup>3)</sup>	2019년 4월
	선진국 채권	자산운용사 (3)	7.0억 달러 <sup>3)</sup>	2022년 1월

주: 1) () 내는 거래기관 수

2) 2022년 중 거래금액 기준

3) 위탁원금 기준

자료: 한국은행

### ESG 투자 확대를 통한 공적책임성 강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공적 책임성 요구에 부응하고 외화자산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12월 위탁운용을 통한 ESG 주

116) 국내 자산운용사를 통한 외환보유액 위탁운용 비중은 전체 위탁자산 중 3.9%를 차지한다.

식투자를 시작한 이후 ESG 투자<sup>117)</sup>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2년 중에는 그린본드, 소셜본드 및 지속가능채권 등을 꾸준히 매입하는 한편 외화자산 전반에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sup>118)</sup>을 적용하면서 중장기 목표인 ESG 통합 전략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직접투자자산 중 회사채에 네거티브 스크리닝의 적용을 완료하였고, 위탁자산의 경우에도 채권 및 주식에 적용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ESG 채권 규모는 직접투자 자산이 68.5억달러, 위탁자산이 12.6억달러이고 주식의 경우 ESG 요소 적용 펀드 규모가 65.3억달러이다.

표 II - 17. ESG 관련 자산 투자 현황(기말 기준)

(억 달러)

상품	운용	규모 <sup>3)</sup>			
		2020	2021(A)	2022(B)	증감(B-A)
채권 <sup>1)</sup>	직접	34.9	58.2	68.5	10.3
	위탁	8.9	14.1	12.6	-1.5
주식 <sup>2)</sup>	위탁	10.8	17.9	65.3	47.4
	합계	54.5	90.2	146.5	56.3

주: 1) 그린본드, 소셜본드, 지속가능채권 등 ESG 채권

2) ESG 요소 적용 펀드 기준

3) 시가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외화자산 운용분야 국제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국제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과 외화자산 운용 관련 논의를 지속해나가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였다.

매년 실시하는 세계은행(World Bank)과의 워크숍, 스위스 중앙은행과의 정례협의 등을 통

해 외화자산 운용 담당부서와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업무경험 및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프랑스 중앙은행, 폴란드 중앙은행 과도 외화자산 운용업무 현황을 공유하였다. 이 밖에 일본 재무성, 중국인민은행과 업무협의를 실시하여 투자자산 운용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국제기구 및 각국 중앙은행 등의 초청으로 외화자산 운용 관련 국제포럼,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ESG 투자, 자산배분 등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 경험을 공유하였다.

## 다. 국제협력

한국은행은 글로벌 협력채널을 통해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 및 주요국의 정책을 시의성 있게 파악하여 정책대응의 유효성을 제고하였다.

코로나19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대면회의의 재개에 맞추어 BIS, G20, IMF와 같은 글로벌 협의체 및 국제기구 현안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EMEAP 의장국으로서 총재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금융계와의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사회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였다.

## 글로벌 정책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

한국은행은 글로벌 국제기구 및 협의체에서의 정책공조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데 기여하였다.

117) 투자 의사 결정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더불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 또한 고려하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118) ESG 투자전략 중 하나로 ESG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산업이나 기업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하는 전략이다.

BIS 중앙은행총재 회의(6회) 및 IMF·세계은행 회의(2회)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동향, 통화정책 긴축의 영향, 기후변화 대응 등 금융경제 현안과 중장기 정책과제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장이 국제금융 관련 정책공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BIS의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BIS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BIS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 방향 등의 결정에 기여하는 한편 주요국의 경제·금융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정책공조·조율을 강화할 수 있었다.

정부와 공동으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4회),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5회)에 참석하여 글로벌 고물가 대응과 세계경제 회복, 국제 자본이동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금융포용 증진, 암호자산 및 CBDC, 기후변화 대응, 저소득국 부채상환유예 방안 등의 논의에도 활발히 참여하였다.

표 II - 18. 국제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2022년 중)

회의명	주요 의제
BIS 중앙은행총재 회의 (1·3·5월 화상회의, 6·9·11월 바젤)	인플레이션, 임금 상승, 통화정책 긴축 속도, 팬데믹 이후 주택 가격, 신흥국 자본흐름, 원자재시장, 중앙은행 사이버리스크, 기후 변화 등
IMF·세계은행 회의 (4월, 10월 워싱턴 D.C.)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경제 상황, 식량 및 에너지 위기, IMF·WB의 취약국 지원 방안 등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2월 화상회의, 4월 워싱턴 D.C., 7월 발리, 10월 워싱턴 D.C.)	글로벌 고물가 대응과 세계경제 회복,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 금융포용 증진, 암호자산 및 CBDC, 기후변화 대응, 저소득국 부채상환유예 방안 등

자료: 한국은행

## 역내 금융협력관계 강화

한국은행은 ASEAN+3, EMEAP, SEACEN 등 아태지역 협의체에서의 금융경제현안 논의는 물론 산하 실무그룹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역내 회원국 간 금융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하였다.

우선 ASEAN+3의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였다. 정부와 공동으로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sup>119)</sup>(1회),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2회) 및 실무 회의(4회)에 참석하여 제3국 역내통화 자금지원 제도, CMIM-PL 갱신 허용기준 완화 등을 반영한 운영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EMEAP 총재 회의 및 중앙은행·금융감독기관수장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SEACEN 총재 회의에 참석하여 최근 금융경제 동향을 논의하는 한편,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암호자산시장의 리스크 요인 및 향후과제, 기후변화 대응 현황 등 최신 현안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SEACEN의 EXCO (Executive Committee) 자문위원회<sup>120)</sup> 위원으로서 SEACEN 센터의 운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다.

119) 매년 ASEAN 10개국 중 1개국과 한·중·일 3개국 중 1개국이 순차적으로 공동의장국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 의장국은 중국과 캄보디아가 담당하였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2022년에도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120) SEACEN 센터의 조직 및 급여체계 개편 업무를 지원하고 신규 인력 채용 자문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서 현재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태국과 스리랑카 중앙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 - 19. 역내 국제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2022년 중)

회의명	주요 의제
제25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5월, 화상회의)	역내 및 세계 금융경제 동향,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 등
제22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5월, 화상회의)	각국 및 세계 금융경제 동향, 역내 금융협력 등
제27차 EMEAP 총재 회의 (8월, 서울)	최근 금융경제 동향,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역내 환율 및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11차 EMEAP 중앙은행·금융감독기구수장 회의(8월, 서울)	금리 상승기 금융기관 자산 부실화 가능성과 중앙은행·감독기관의 과제 등
제58차 SEACEN 총재 회의 (12월, 시엠립)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대응 현황 등

자료: 한국은행

## 글로벌 교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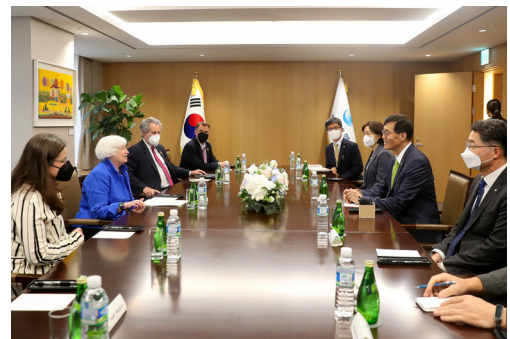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글로벌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해외 주요 인사 및 학계와의 활발한 교류 기회를 마련하였다.

한국은행 총재는 2022년 7월 한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최근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글로벌 정책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직원들은 옐런 장관과 ‘경제학계와 여성(Women in Economics)’을 주제로 대담하였다.

한편 총재는 8월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Jackson Hole Economic Policy Symposium)」에 참석하여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및 학계 인사들과 포워드 가이드스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최근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 여건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고 일부 세션에는 패널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10월에는 피

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에 초청되어 글로벌 통화긴축 가속화 환경에서의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강연을 실시하였다.

그림 II - 22.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



자료: 한국은행

##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에 정책경험 공유 확대

한국은행은 8개의 개발도상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조사연구, 통화정책, 금융안정, 외환정책 등 중앙은행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경험 전수를 통해 이들 국가의 금융발전 및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중앙은행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졌다.

먼저 지식교류프로그램(Knowledge Partnership Program, 이하 KPP<sup>121)</sup>) 사업은 코

121) 한국은행의 업무 관련 지식, 정책수행 경험, 한국의 금융시스템·인프라 발전 경험 등을 개발도상국 중앙은행과 공유하기 위한 정책자문 및 기술지원 사업을 말한다.

코로나19 방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대면 사업수행방식을 재개하는 등 사업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신속하게 되돌리고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 방식의 적극 활용 등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한국은행의 정책 경험과 업무 지식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수하였다. 또한 협력대상국 중앙은행 고위급(총재, 부총재, 금통위원 등) 면담, 현지 유관기관 관계자의 세미나 참여 등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후방효과를 도모함으로써 한국은행의 대외위상을 제고하였으며 협력대상국 중앙은행과의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KPP 사업수행시기를 6월~익년 1월로 조정(2개월 이연)함으로써 사업 결과물의 완성도를 제고하였으며, 수석고문을 확대(5→6명)하는 등 협력대상국과의 고위급 정책대화 채널을 강화하였다.

표 II - 20. 지식교류프로그램(KPP) 실적 (2022년 중)

협력대상국	사업과제
캄보디아	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 기법 개발
베트남	거시경제 분석 및 전망 역량 강화
네팔	실물경제에 대한 신용 확대 영향 분석
몽골	은행 지배구조 강화
스리랑카	외환거래 모니터링 및 안정화 정책
우즈베키스탄	거시건전성 정책 및 분석 체계 강화
카자흐스탄	경제전망 및 분석 시스템 개선
키르기스스탄	통화정책 거시경제모형 개량

자료: 한국은행

또한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중앙은행 업무연수(CBSP, Central Banking Study Program)를 비대면 및 대면으로 실시하였다. 외화자산운용, 지급결제, 내부경영, 금융안정 등 4개 분야에 걸친 한국은행의 경험을 개발도

상국 중앙은행 직원들에게 공유하였으며, 21개국 150명이 참여하여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다.

표 II - 21. 중앙은행 업무연수(CBSP) 실적 (2022년 중)

개최일정	참석인원
1차 CBSP (외화자산운용, 3월 28일~30일)	8국 44명
2차 CBSP (지급결제, 6월 20일~22일)	16개국 76명
3차 CBSP (내부경영, 8월 29일~9월 2일)	6개국 11명
4차 CBSP (금융안정, 10월 18일~21일)	10개국 19명

주: ( )내는 주제 및 일정, 3차 및 4차는 대면 실시  
자료: 한국은행

##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확대

한국은행은 2022년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국제금융기구 또는 협의체에 출자·출연금 2억 9천만 달러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제19차 재원보충,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가입 관련 출자,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African Development Fund) 재원보충 등으로 출자금이 증가하고 IMF의 수단 채무감면기금에 대한 납입 등으로 출연금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말 국제금융기구 등에 대한 출자·출연금 규모는 총 178억 달러에 이른다.



표 II - 22.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현황

(백만 달러)

	2021년 말(A)	2022년 말(B)	증감(B-A)
<b>출 자 금</b>	<b>16,493</b>	<b>16,741</b>	<b>248</b>
IMF	11,861	11,861	0
IBRD	335	359	24
IDA	2,296	2,448	151
ADB	293	293	0
AfDB·AfDF	577	613	36
AIIB	748	748	0
CABEI	96	101	6
기타	288	319	31
<b>출 연 금</b>	<b>1,006</b>	<b>1,048</b>	<b>42</b>
IMF	79	121	42
IBRD	34	34	0
ADB·ADF	671	671	0
IDB·MIF	161	161	0
IIC	40	40	0
기타	21	21	0
<b>출자·출연금 합계</b>	<b>17,499</b>	<b>17,789</b>	<b>290</b>

자료: 한국은행

한편 2022년 말 한국은행의 IMF에 대한 출자 규모는 8억 5천만 SDR이다. 이 가운데 신차입협정(NAB, New Arrangements to Borrow)에 따른 출자 규모는 3천만 SDR,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기금(PRGT,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차입약정<sup>122)</sup>에 따른 출자 규모는 8억 2천만 SDR이다. 2022년 중 총 출자 규모는 전년 대비 5.3천만 SDR 감소하였는데 이는 신차입협정에 따른 출자가 4.7천만 SDR,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기금 차입약정에 따른 출자가 0.6천만 SDR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II - 23. IMF에 대한 출자 현황

(백만 SDR)

	2021년 말 (A)	2022년 중		2021년 말 (D=A+B-C)	증감(D-A)
		출자(B)	상환(C)		
NAB	79	0	47	32	-47
PRGT	825	0	6	819	-6
<b>합계</b>	<b>903</b>	<b>0</b>	<b>53</b>	<b>851</b>	<b>-53</b>

자료: 한국은행

## QR BOX



## QR 1

한국은행 온라인  
외환심사시스템

122) IMF가 저소득국가에 대한 양허성 용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별 국가와 체결하는 약정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 체결하였으며 2013년 처음 출자를 실시하였다.

## 7. 조사통계

### 가. 조사연구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연구의 범위는 국제경제, 성장, 물가, 고용 등 국내외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조사연구 결과는 각종 보고서 및 책자로 발간되고 있다<sup>123)</sup>.

#### (1) 본부의 조사연구

##### 우리 경제 주요 현안 분석

2022년 중 경제 현안 관련 조사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그리고 고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글로벌 금융긴축 가속화 등과 같은 대외여건 변화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리스크를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우리나라의 對유럽 수출에 대한 파급효과를 살펴보고<sup>124)</sup>,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에 따른 유로지역 생산차질 가능성과 그에 따른 국내산업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였다<sup>125)</sup>.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조치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공급차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sup>126)</sup>. 이와 함께 미국과 유럽의 경우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진 점을 감안하여 이들 국가의 경기침체 리스크를 과거 경착륙 시기와 비교하고 경기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경제로의 파급효과를 가늠해보았다<sup>127)</sup>.

대내적으로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어 우리나라의 고물가 상황에 대한 분석 및 관련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였다. 먼저 코로나 충격으로부터의 회복과정에서 수요압력이 높아진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요인이 더해지면서 나타난 물가상승압력의 광범위한 확산 현상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향후 물가흐름을 평가해보았다<sup>128)</sup>.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국제식량가격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식량가격 상승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sup>129)</sup>. 이와 함께 고물가 상황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동학을 결정하는 주요 물가 동인을 점검하는 한편<sup>130)</sup> 최근 근원물가 흐름의 특징 및 향후 흐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요 측면의 물가 동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점검하였다<sup>131)</sup>. 이 외에도 물가 오름세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임금상승률도 함께 높아지는 물가-임금 간 상호작용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sup>132)</sup>.

한편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123) 이후 각주를 통해 소개되는 보고서 및 책자들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조사·연구」 항목에서 검색할 수 있다.

124) 우크라이나 사태가 EU경제 및 한-EU 교역에 미치는 영향(국제경제리뷰, 2022년 5월)

125) 러시아 가스공급 관련 EU 생산차질 및 국내산업 리스크 점검(BOK 이슈노트, 2022년 9월)

126)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특징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BOK 이슈노트, 2022년 7월)

127) 미국·유럽의 경기침체 리스크 평가 및 시사점(BOK 이슈노트, 2022년 9월)

128) 물가상승압력 확산 동향 평가(BOK 이슈노트, 2022년 2월)

129) 최근 애그플레이션 현황 및 시사점(BOK 이슈노트, 2022년 6월)

130) 고인플레이션 지속가능성 점검(BOK 이슈노트, 2022년 9월)

131) 향후 근원물가 흐름 점검(BOK 이슈노트, 2022년 12월)

통화정책의 긴축기조를 강화한 점을 고려하여 금리상승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였다. 우선 금리상승의 영향을 내수 부문별로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sup>133)</sup>. 그리고 팬데믹 이후 크게 상승하였던 주택가격이 하락 전환되고 거래가 부진함에 따라 주택시장을 둘러싼 여건 및 리스크 요인을 짚어보면서 금리인상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sup>134)</sup>. 아울러 그간 누증된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면서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계대출의 금리민감도 수준을 추정하였다<sup>135)</sup>.

한편 팬데믹 이후 고용상황에 큰 변화가 나타난 점을 감안하여 고용시장의 현안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분석하였다. 우선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의 최근 추이를 살펴보고 과거 위기와 비교하여 변동요인을 분석하였으며<sup>136)</sup>, 임금 상승률의 요인 분해, 임금-물가 간 전가효과 분석 등을 통해 노동시장 내 임금상승 압력을 평가하였다<sup>137)</sup>. 또한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하여 팬데믹 이후 고용시장의 회복 수준을 양적인 측면이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해보았다<sup>138)</sup>. 아

울러 노동수급의 관점에서 취업자수 증가세를 평가하고 최근 청년층 및 고령층 고용상황의 특성을 분석하였다<sup>139)</sup>.

이외에도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및 신성장동력 등 최근 경제환경 변화와 구조적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인구 고령화가 경제주체들의 생애주기 소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가상실험을 통해 향후 고령화 진전이 소비에 미칠 영향을 추정하였다<sup>140)</sup>. 또한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파급경로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시대에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sup>141)</sup>. 아울러 국내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시장점유율, 시장성 등 여러 각도에서 주요국과 비교하고 잠재 리스크 요인을 평가하였다<sup>142)</sup>.

## 경제연구원 조사연구 강화

경제연구원에서는 중장기 조사연구와 더불어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통화정책<sup>143)</sup>, 노동시장<sup>144)</sup> 등 주요 경제 현안

132) 우리나라의 물가-임금 관계 점검(BOK 이슈노트, 2022년 7월)

133) 금리 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점검(BOK 이슈노트, 2022년 7월)

134)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BOK 이슈노트, 2022년 8월)

135) 가계대출의 금리민감도 분석 및 시사점(조사통계월보, 2022년 9월)

136)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 경제위기별 비교를 중심으로(BOK 이슈노트, 2022년 1월)

137)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상승 압력 평가 및 시사점(BOK 이슈노트, 2022년 4월)

138) 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BOK 이슈노트, 2022년 6월)

139) 최근 취업자수 증가에 대한 평가(BOK 이슈노트, 2022년 8월)

140)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생애주기 소비변화 분석(조사통계월보, 2022년 2월)

141) 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BOK 이슈노트, 2022년 1월)

142) 국내 주요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리스크 요인 평가(조사통계월보, 2022년 3월)

143) Measuring the Effects of LTV and DTI Limits(BOK경제연구, 2022년 1월), Optimal Monetary Policy under Heterogeneous Consumption Baskets(BOK경제연구, 2022년 11월), 통화정책 충격이 생산과 물가에 미치는 효과의 국가별 차이 및 결정요인(BOK경제연구, 2022년 12월)

144) Immigration and Natives' Task Specialization(BOK경제연구, 2022년 1월), Housing Wealth, Labor Supply, and Retirement Behavior(BOK경제연구, 2022년 2월), Technological Change, Job Characteristics, and Employment of Elderly Workers(BOK경제연구, 2022년 9월), 전공 불일치가 불황기 대졸 취업자의 임금에 미치는 장기 효과 분석(경제분석, 2022년 9월)

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환율, 자본이동, 글로벌가치사슬 등 개방경제 관련 주요 이슈<sup>145)</sup>, 디지털 경제, MZ 세대, 소득 불평등 등<sup>146)</sup> 시의성 있는 연구도 활발히 수행함으로써 중장기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학술적·이론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를 꾸준히 발표<sup>147)</sup>하고 북한경제<sup>148)</sup>에 대해서도 연구를 지속하였다.

특히 2022년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외부에 적극 전파하였다. 관련 연구결과<sup>149)</sup>를 바탕으로 CBDC 정책연구 심포지엄<sup>150)</sup>을 개최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경제분석」 특별호<sup>151)</sup>로 발간하였다.

###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및 교류 지속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면·비대면 회의를 통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3월에는 「BOK-BIS 제14차 Asian Research Network 워크숍」을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6월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단되었던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를 “The Changing Role of Central Banks: What Can We Do and What Should We Do?”를 주제로 대면·비대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하였다<sup>152)</sup>. 동 컨퍼런스에서는 학계 및 국제기구의 저명 학자들<sup>153)</sup>이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중앙은행에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다. 8월에는 「2022 Annual Meeting of the CEBRA」, 10월에는 「2022 FMA Annual Meeting」 Kafa 세션을 한미재무학회와 공동주최하였다. 11월에는 한국경제학회와 「2022 BOK-KEA International Conference」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를 통

145) Exchange Rate Regime and Optimal Policy(BOK경제연구, 2022년 3월), Transmission of Global Financial Shocks: Which Capital Flows Matter?(BOK경제연구, 2022년 1월), Selection into Outsourcing versus Integration Strategies for Heterogeneous Multinationals(BOK경제연구, 2022년 8월)

146) 디지털 경제와 시장 독과점 간 관계(BOK이슈노트, 2022년 1월), MZ세대의 현황과 특징(BOK이슈노트, 2022년 3월), Demand Shocks vs. Supply Shocks: Which Shocks Matter More in Income and Price Inequality?(BOK경제연구, 2022년 2월)

147) A Counterfactual Method for Demographic Changes in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s(BOK경제연구, 2022년 1월), Financial Literacy and Mutual Fund Retail Investing(BOK경제연구, 2022년 2월), Fixed Effects Quantile Estimations with Extended Within Transformation and their Application(BOK경제연구, 2022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행태변화 분석: 세대별 소비행태를 중심으로(BOK경제연구, 2022년 11월)

148) 북한의 '중앙은행 돈표' 발행의 배경과 시사점(BOK이슈노트, 2022년 3월), 북한 수출입단가치수 추정(BOK경제연구, 2022년 4월), 북한 소비자 지급수단 조사 및 분석(BOK경제연구, 2022년 8월), 북한의 경제체제에 관한 연구(경제분석, 2022년 9월), 최근 5년(2017~2021)의 북한경제 및 향후 전망(BOK이슈노트, 2022년 9월)

149)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Privacy: A Randomized Survey Experiment(BOK경제연구, 2022년 8월) 등 다수

150)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2022년 10월)

15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의 의의 및 필요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은행산업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CBDC and Card Payment Market 등 총 4편의 학술연구를 경제분석 특별호(제28권 제4호)로 발간

152) 보다 자세한 내용은 BOK 국제컨퍼런스 홈페이지 및 한국은행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3) 로버트 타운센드(Robert M. Townsend) 시카고대 교수,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이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토마스 사ージェント(Thomas J. Sargent) 뉴욕대 교수, 마커스 브루너마이어(Markus K. Brunnermeier) 프린스턴대 교수, 조나단 오스트리(Jonathan Ostry) 조지타운대 교수, 로렌스 볼(Laurence M. Ball) 존스홉킨스대 교수, 아티프 미안(Atif Mian) 프린스턴대 교수, 토드 케이스터(Todd Keister) 텃거스대 교수 등 저명학자와, 마틴 보덴스타인(Martin Bodenstein) 미연준 실장, 세빔 코셈(Sevim Kosem) 영란은행 선임연구위원, 마코토 나카지마(Makoto Nakajima) 필라델피아연준 선임연구위원, 데이비드 안돌파토(David Andolfatto) 세인트루이스연준 선임부총재 등 중앙은행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자료: 한국은행

해 최신 경제이론에 대한 수준 높은 강연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대내외 연구기관 및 학계와의 교류를 확대하였다. 12월에는 「한·일 중앙은행 공동 리서치 워크숍」<sup>154)</sup>을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해 서로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양국 중앙은행의 연구성과와 지식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2022년에는 BIS에서도 참가하여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외 석학들과 공동연구도 활발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공동연구는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한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연구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 부서 간 협업연구 강화

새로운 금융경제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

사연구업무 수행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외부연구용역 및 부서 간 협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연중 총 4차례의 「조사연구위원회」<sup>155)</sup>를 개최하여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연구업무를 조율하였으며, 외부연구용역, 국내외 공동연구 및 부서 간 협업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점 연구주제를 적극 발굴하였다.

또한,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구축 및 부서 간 공유 방안을 개선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개선 및 협업연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조사연구 자료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부서 간 협업 연구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154) 2017년부터 일본은행 금융연구소와의 공동 리서치 워크숍을 매년 번갈아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다.

155) 위원장(경제연구원 담당 부총재보), 5인의 위원(부총재보 4인 및 경제연구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지역본부는 본부의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금융안정 기능의 효과적 수행과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역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경제 관련 각종 통계 편제, 주요 현안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지역 유관기관, 대학 등과 공동으로 지역 내 현안사항에 대한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책과제 발굴과 방안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지역경제 동향 모니터링 강화

지역본부는 지역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에 대해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 분석한 「지역경제보고서」를 매분기 발간하여, 지역경제 동향 파악 및 본부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주요자료로 제공하였다. 아울러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유관부서에 전달하여 정책수립에 기여하였다. 또한, 여타 지역경제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결과는 이슈분석, 이슈 모니터링 및 현장리포트로 작성하여 「지역경제보고서」를 통해 지역사회에 제공하였다.

또한 기업경기조사, 소비자동향조사,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 기업경영분석 등 지역경제의

동향 파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정기적으로 편제하여 제공하였다. 아울러 11월에는 한국은행-NH농협카드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빅데이터 기반의 지역경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확충에도 노력하였다.

### 지역경제의 주요 현안 분석<sup>156)</sup>

지역본부는 지역 내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통해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사회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2022년에는 ICT산업 성장의 주요 특징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sup>157)</sup>, 탄소배출 저감정책이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sup>158)</sup>, 지역 내 자영업 주요 특징과 코로나19 이후 동향<sup>159)</sup> 등을 작성하여 지역사회에 제공하였다<sup>160)</sup>. 특히 12월에는 3개 지역본부와 본부 조사국 지역경제부가 협업하여 태풍 힌남노로 인한 철강 생산차질의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는 자료를 작성하였다<sup>161)</sup>.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연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지역경제 격차 요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sup>162)</sup>, 국민전환모형을 통한 부산지역 가계부채의 적정성 평가<sup>163)</sup>,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ESG 경영 기대효과<sup>164)</sup>, 포항과 경주 중심의 배터리 소재 및 차세대 에너지

156) 이후 각주를 통해 소개되는 보고서 및 책자들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지역본부자료 - 조사연구자료'에서 검색할 수 있다.

157) ICT산업 성장의 주요 특징 및 경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경기본부, 2022년 1월)

158) 탄소배출 저감정책이 충남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대전세종충남본부, 2022년 1월)

159) 부산·울산지역 자영업 주요 특징과 코로나19 이후 동향(부산본부, 2022년 1월)

160) 2022년 중 총 85건의 자체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 8건은 지역본부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161) 철강 생산 차질의 경제적 영향 점검(BOK이슈노트, 2022년 12월).

162) 지역경제 격차 요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고학력·고급인력의 역할을 중심으로(광주전남본부, 2022년 10월)

163) 국민전환 모형을 통한 부산지역 가계부채의 적정성 평가 및 파급효과 분석(부산본부, 2022년 3월)

164)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ESG 경영 기대효과 분석 및 추진방향 제언(강원본부, 2022년 12월)

분야 혁신클러스터 구축방안<sup>165)</sup> 등에 대한 연구 보고서 등을 작성<sup>166)</sup>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

### 지역사회와의 연구교류 강화

지역본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성장전략,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 포럼 등을 다수 개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지역 유관기관, 대학 등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 변화와 울산경제의 대응, 경남지역 미래 에너지 산업 전망과 선도산업 육성방안,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한 강원경제 발전전략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sup>167)</sup>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하였다. 또한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이 대구·경북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광주전남 고용 상황 평가 및 일자리 정책 방향, 강원 영동지역 관광시장 전망 등 지역경제 현안 파악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포럼을 개최<sup>168)</sup>하여 지역사회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 및 소통 강화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책 이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역경제 동향 관련 정책 참고자료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주관 회의 등에 적기에 제공하여 정책방안 수립에 기여하였다.

한편 지역본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나 지역단위 행정·경제중심지로서 조사연구·모니터링·교류협력 등을 특별히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담당제<sup>169)</sup>를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3) 국외사무소의 조사연구

국외사무소는 관할지역 경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동향분석<sup>170)</sup>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주재국 중앙은행·국제기구 주요 인사 및 금융·경제 전문가와의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한 현지정보<sup>171)</sup>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2022년에는 디지털 전환, 기후 리스크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와 경제적 파급효과 등 주요 글로벌 금융경제 이슈와 관련하여 각국 중앙은행 및 정부의 다양한 정책 대응을 면밀히 파악한 분석 자료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주요 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대외협력·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정보 수집 채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현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였고 주요 이슈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 나. 통계

한국은행은 국가통계 작성기관으로서 통화·유동성, 예금·대출 금리, 가계신용 등 통화금융

165) 포항과 경주 중심의 배터리 소재 및 차세대 에너지 분야 혁신클러스터 구축방안(포항본부, 2022년 12월)

166) 2022년 중 총 31건의 외부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였다.

167) 2022년 중 총 17회의 지역경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68) 2022년 중 총 34회의 지역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169) 2022년 말 현재 12개 지역본부가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170) 2022년 중 총 98개의 조사연구 및 동향분석 자료를 작성하였다.

171) 2022년 중 총 413개의 현지정보를 작성하였다.



통계 외에도 국민소득(GDP), 산업연관표, 국민 대차대조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및 국제 투자대조표 등 국민계정통계와 함께 생산자물가, 수출입물가, 기업경영분석, 기업경기(BSI) 및 소비자동향(CSI) 조사 등 18종의 국가승인 통계를 편제하고 있다<sup>172)</sup>. 그리고 기존 통계를 확충하는 동시에 신규 통계 개발도 추진하였으며, 국제기구, 학계, 정부 등과의 통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경제통계시스템(ECOS) 재구축을 완료하여 통계분류체계 개편, 통계검색 기능 개선 등 대국민 통계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 통계 개선 및 확충

한국은행은 산업구조의 변화, 생산기술의 발전, 디지털 환경 가속화 등 최근 경제 및 사회적 현상을 통계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속보성 지표를 작성하고 표본 개편 등을 실시하였다.

비정형 대용량 자료를 이용한 속보성 통계확충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제뉴스 기사에 나타난 경제심리를 지수화한 뉴스심리지수<sup>173)</sup>를 작성하여 2022년부터 실험적 통계<sup>174)</sup>로 매주 일간·월간 지표를 ECOS를 통해 공개하였다. 그 밖에 스캐너 자료를 활용한 물가지수 산출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소비자동향조사(CSI)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개편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민계정 통계의 경우 2020 기준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2015년 접속불변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각 기준년 간 시계열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국제적 통계 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2022년 출범한 New DGI(Data Gaps Initiative)<sup>175)</sup>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였으며 가계분배계정, 녹색채권 발행·보유 통계 등의 작성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New DGI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협조할 계획이다.

## 국내외 통계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학계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주요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각종 현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한국통계학회-한국은행 공동포럼(2022년 9월)」을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하였다<sup>176)</sup>. 동 포럼에서는 학계 및 유관기관 통계 전문가 1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디지털시대의 데이터 경제와 통계」라는 주제로 금융경제데이터 분석을 위한 최신 통계방법론을 살펴보고 경제분석 및 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17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173) 뉴스심리지수는 경제뉴스 기사에 나타난 감성을 긍정, 부정, 중립으로 분류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소비자심리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형성하며 속보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고빈도 지표의 특성상 변동성 또는 소음(Noise)이 월간 또는 분기기준으로 작성되는 타 거시경제 지표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174) 빅데이터 등 기존 통계와 다른 데이터나 방법론을 적용하여 작성하나, 품질 제고를 위해 관찰이 필요한 통계의 작성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계청이 2021년 9월 도입한 제도로 뉴스심리지수는 실험적 통계 2022-001호로 등록되어 있다.

175) 2009년 G20 회의(런던)에서 시작된 국제 통계 개발·개선 사업으로 IMF와 FSB 주도 하에 주요 국제기구(BIS, ECB 등) 및 G20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1단계 사업(DGI-1;CDS, 구조화사업, 비은행금융기관 대외익스포저)에 이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단계 사업(파생상품, 대외직접투자, 통계공유 등)을 진행하였고, 2022년부터 시작된 New DGI(기후변화, 가계부문 분포통계, 핀테크 및 금융포용, 민간 및 행정 데이터에 대한 접근)는 2027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176) 포럼은 한국은행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반기별 통계협력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통계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주요 국제기구 등이 개최한 컨퍼런스 및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새로운 국제통계기준의 성공적인 적용·이행과 관련된 각종 현안을 논의하였다.

### 통계서비스 향상

한국은행은 대학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경제통계지표 해설 강좌」를 연 48회 개최하여 경제통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하반기 들어서

는 온라인 방식에서 벗어나 대면 강의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2020년 4월에 착수한 경제통계시스템(ECOS) 재구축 사업을 2022년 5월에 완료<sup>177)</sup>함으로써 시스템 기반 편제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자료처리, 시각화, 자동화 기능을 강화하여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였으며, 통계자료입수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자료수집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였다. 또한 통계분류체계를 개편하고 화면구성, 통계검색 기능을 개선하여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그림 II - 24. 한국통계학회 - 한국은행 공동포럼 (2022년 9월 16일)



자료: 한국은행

177) 자세한 내용은 '참고II -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재구축'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II -2.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재구축

한국은행은 지난 2004년 만들어져 그간 국민들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경제통계시스템(ECOS)  
을 전면 재구축하였다.(2022년 5월 30일 정식 가  
동) 경제통계시스템 전면 재구축은 통계작성 업무  
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통계조회환경을 제공하고 데이터 관리체계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우선 외부 이용자들이 통계를 더 효과적으로 검  
색할 수 있도록 통계분류체계를 재분류하고 화면구  
성과 검색기능도 개선하였다. 기존 18개이던 통계  
의 대분류 체계를 9개로 단순화하고 분류 및 하위  
계층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하는 통계까지의  
탐색 과정을 줄였다. 또한 통계 검색의 효율성을 높  
이고, 사용자가 과거에 조회한 목록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 사용되는 통계의 재조회과정을  
편리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데이터 분석 툴을 이  
용해 통계자료를 시각화하고 통계표, 보고서 등의  
작성이 용이하도록 편의 기능도 향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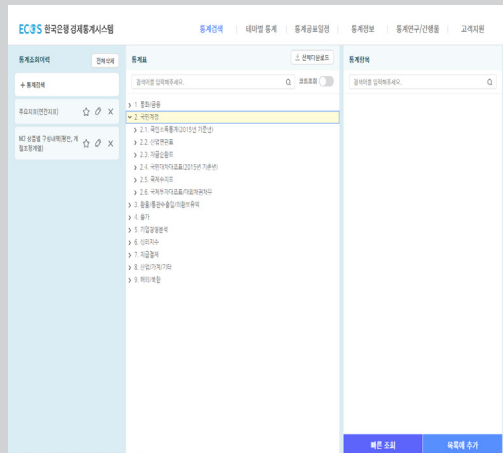
시스템 측면에서는 한국은행의 통계기초자료 수  
집부터 편제, 공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통계작성과  
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통계  
작성업무 전산화 효과를 높이고 기초자료의 처리,  
오류검증 체계를 강화했다. 기존 통화금융통계, 생  
산자물가 등을 재개발하고 국제수지, 자금순환, 금  
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 등의 편제기능을 추가하  
여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높였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새롭게 구축된 경제통계시스  
템을 기반으로 경제 및 IT 환경 변화와 다양한 통계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II - 25. 이용자 포털 메인 및 통계 검색 화면



### 통계 검색



자료: 한국은행

## QR BOX



### QR 1

조사·연구 홈페이지



### QR 2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  
홈페이지



### QR 3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  
영상



### QR 4

ECOS 홈페이지



### QR 5

한국통계학회-한국은행  
공동포럼

## 8. 국고 및 증권

### 가. 국고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 즉, 국고금 출납기관으로서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고,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시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거래를 정부 회계제도<sup>178)</sup>에 맞추어 처리하고 정부와 상호 대조하여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국고금 수급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국고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 국고금 수납 및 지급 현황

국고금 수납업무는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우체국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sup>179)</sup>에서 취급하고 있다. 국고대리점은 일반 납부자들이 납부하는 국고금을 수납하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정부의 국고여유자금, 국고채권발행자금 등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고 있다. 2022년 중 국고대리점 등을 통해 수납된 국고금은 595조 원이며 한국은행에 직접 수납된 국고금은 2,240조 원이다.

한편 대부분의 국고금 지급업무는 국고전산망 실시간 전자이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 지출관을 통해 국고

금 이체 요청을 받으면 실시간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권자 계좌로 국고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한국은행은 국고여유자금, 국고채권상환자금 등을 정부당좌예금에서 지급하고 있다. 2022년 중 국고금 총 지급규모는 2,826조 원에 해당한다.

표 II - 24. 국고금 수납 및 지급

	2020	2021(A)	2022(B)	증감(B-A)
총수납	2,077	2,650	2,836	186
국고대리점 등 수납	448	517	595	78
한국은행 수납 <sup>1)</sup>	1,629	2,133	2,240	107
총지급 <sup>1)</sup>	2,071	2,625	2,826	201

주: 1) 국고여유자금 회수 및 운용, 국고채권 발행 및 상환, 국고계정 간 대체 등을 포함  
자료: 한국은행

#### 국고대리점 현황

한국은행은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하여 국고금 수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 유형에 따라 국고수납대리점과 국고금수납점으로 구분한다<sup>180)</sup>. 2022년 말 국고대리점은 1만 6,539개로 293개 감소한 반면, 국고대리점을 통한 수납금액은 563조 원으로 71조 원 증가하였다.

178) 우리나라는 정부 회계제도를 「국가재정법」에 의해 수입·지출을 현금흐름에 따라 정리하는 현금주의와 「국가회계법」에 의해 경제적 거래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로 정리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한국은행은 현금주의에 따른 계리만 수행하고 있다.

179) 2008년부터 국고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을 국고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180) 국고수납대리점이란 은행 영업점을, 국고금수납점이란 농협·수협·산림조합 회원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 영업점 및 카카오�뱅크를 말한다.

표 II - 25. 국고대리점 현황<sup>1)</sup> 및 수납금액

(개, 조 원)

		2021(A)	2022(B)	증감(B-A)
개수	수납대리점	6,292(22)	5,940(22)	-352
	수납점	10,540(7)	10,599(7)	59
	계	16,832(23)	16,539(23)	-293
수납 금액	수납대리점	469	539	70
	수납점	23	24	1
	계	492	563	71

주: 1) ( ) 내는 대상금융기관 수

자료: 한국은행

## 국고전산망 운영

한국은행은 국고업무를 위해 2003년부터 정부,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고금 지급을 실시간 전자이체 처리하여 재정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가운데 국고금 수납, 국세 환급 등 대량의 자료는 지정된 시간에 일괄 처리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편 국고전산망을 통한 국고업무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고전산망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전산장애 시 이메일 등 대체매체 혹은 재해복구센터<sup>181)</sup>를 이용하여 국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

2022년 중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통한 처리 규모는 일평균 48.2만 건 및 25.4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7%, 16.3% 증가하였다.

표 II - 26. 국고전산망 처리 실적 (일평균)

(천 건, 조 원, %)

		2021	2022	증감률
건수	실시간 전자이체	48.2	43.4	-9.9
	일괄 처리	395.3	438.5	10.9
	(국고금 수납)	327.2	364.1	11.3
	(국세 환급)	68.2	74.4	9.1
	계	443.5	481.9	8.7
금액	실시간 전자이체	19.4	22.6	16.2
	일괄 처리	2.4	2.8	17.4
	(국고금 수납)	2.1	2.4	16.4
	(국세 환급)	0.3	0.4	23.1
	계	21.8	25.4	16.3

자료: 한국은행

##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 및 현황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2022년 한도는 50조 원으로 2021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II - 27.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십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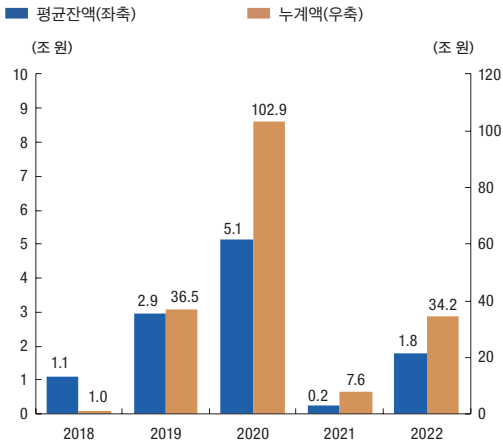
	2021(A)	2022(B)	증감(B-A)
통합계정	40,000	4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	8,000	-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	2,000	-
계	50,000	50,000	-

자료: 한국은행

2022년 중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 규모는 평잔 기준 1.8조 원으로 2021년 대비 1.6조 원 증가하였으며 누계액 기준으로도 7.6조 원에서 34.2조 원으로 26.6조 원 증가하였다.

181) 주전산센터가 마비되는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처리를 위한 백업 전산시스템이다.

그림 II - 26. 대정부 일시대출 평균잔액 및 누계액



자료: 한국은행

## 나. 증권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국공채를 매매 또는 대차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위탁에 따라 국고채권 및 재정증권의 발행·상환·등록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2022년 중 국고채권<sup>182)</sup>은 경쟁입찰 등을 통해 168.6조 원이 발행되고 74.8조 원이 상환되었다. 그 결과 2022년 말 국고채권 발행잔액은 937.5조 원을 기록하였다. 재정증권<sup>183)</sup>은 경쟁입찰을 통해 연중 16.3조 원이 발행되었으며, 연내에 전액 만기 상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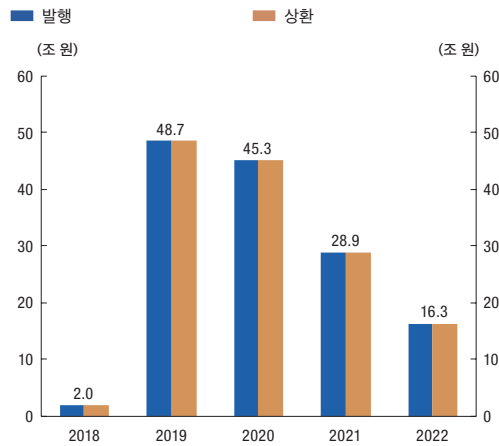
표 II - 28. 국고채권 발행 및 상환

(조 원)

국고채권	2021년	2022년 중		2022년
	말 잔액	발행	상환	말 잔액
국고채권	843.7	168.6	74.8	937.5
2년	12.5	15.2	0.5	27.2
3년	82.3	30.3	30.6	82.0
5년	117.7	30.1	24.9	122.9
10년	264.6	31.5	17.5	278.5
20년	145.3	10.2	1.4	154.1
30년	205.9	47.1	-	253.0
50년	15.4	4.3	-	19.7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 - 27. 재정증권 발행 및 상환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sup>184)</sup>과 마찬가지로 외국 중앙은행 및 국제금융기구의 국내 채권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6개 외국 중앙은행 및 1개 국제금융기구와 증권

182) 정부가 중장기 재정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이다.

183) 정부가 회계연도 중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족한 재정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단기 국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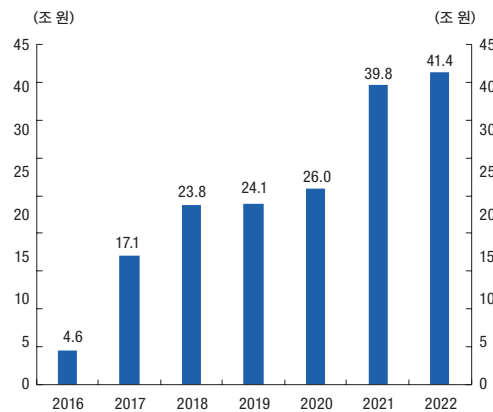
184) 현재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FRB NY),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중국인민은행(PBOC), 호주 중앙은행(RBA), 프랑스 중앙은행(BDF), 독일 중앙은행(DBB), 캐나다 중앙은행(BOC), 네덜란드 중앙은행(DNB) 등이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기관이 투자 중인 41.4조 원 규모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보관 및 결제, 원리금 수령, 거래내역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은행 간 협의<sup>185)</sup>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그림 II - 28. 한국은행 증권 커스터디 제공 규모  
(연말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 다. 기금관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의 위탁을 받아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운용·관리 업무<sup>186)</sup>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은 국고채권 발행, 예탁금의 원리금 회수 등을 통해 연중 250조 원을 조달하여 국고채권 원리금 상환, 일반회계 및 외환평형기금 예탁 등으로

운용하였다. 용자계정은 용자금의 원리금 회수 등으로 0.4조 원을 조달하여 국책사업에 대한 용자 등으로 운용하였다. 차관계정은 대외 원리금상환이 2016년 종료되었으며 전대차관 회수 업무도 2022년 말 종료되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세계잉여금 등으로 연중 7.1조 원을 조달하여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

표 II - 29. 한국은행 기금관리 업무의 주요 내용

기금명	설치목적 및 주요 업무내용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부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괄계정: 국고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일반회계 예탁, 국고채권 원리금 상환 등으로 운용</li> <li>용자계정: 국민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대어</li> <li>차관계정: 국제협력기구, 외국 정부·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도입하는 차관자금을 관리</li> </ul>
공적자금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2003년에 설치 2003~2006년 중 부담한 총 49조 원의 채무를 2027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 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전액 상환할 예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저축 장려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1986년에 설치 매년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연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

자료: 한국은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연중 정부 출연금 266억 원 및 한국은행 출연금 266억 원 등으로 532억 원을 조달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게 저축 장려금으로 지급하였다<sup>187)</sup>. 2022년 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3만 3천 가구이다.

185) 증권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국 중앙은행 및 BIS가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201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186) 수입금의 징수, 지출금의 지급 및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말한다.

187) 저축만기 시 저축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은 연 0.9~1.5%(저소득 가입자는 연 3.0~4.8%) 수준이다.

한편 기금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시적인 여  
유자금을 RP, MMDA 등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  
용하고 있다.

표 II - 30. 기금 조달(운용) 현황

(십억 원)

	2021(A)	2022(B)	증감(B-A)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 계 정	267,466	249,984	-17,482
용 자 계 정	445	422	-23
차 관 계 정	344	352	8
공적자금상환기금	7,098	7,108	10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	68	53	-15

자료: 한국은행

## 9. 대외 커뮤니케이션

한국은행은 국가경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은행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외부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2022년 중에는 금융경제에 대한 조사연구, 판단 자료 등을 더욱 다양화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였으며 정부, 국회, 학계 등과의 협업 및 교류를 확대하고자 힘썼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등에 따라 대면 방식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혼합하며 대국민 소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아울러 중앙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외부 경제주체들의 금융경제에 대한 이해력 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 경제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 가. 커뮤니케이션 강화

한국은행은 조사연구자료의 발간·배포, 각종 회의·행사 개최,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 화폐박물관 운영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조사연구자료 대외 발간 확대

한국은행은 「BOK 이슈노트」, 「BOK 경제연

구」, 「조사통계월보」, 「해외경제포커스」 등의 간행물을 생산·발표하였다. 특히 「BOK 이슈노트」의 발간횟수를 2021년 32회에서 2022년 48회로 확대하였으며, 2022년 중 신설된 한국은행 블로그<sup>188)</sup>를 통해 총 34건의 글을 게시하는 등 한국은행의 연구결과와 분석 자료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공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통화정책, 경제전망, 금융안정 등 한국은행의 주요 업무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 인플레이션 등 최신 현안을 다루고 있다.

또한 정책 및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 대상 평판조사<sup>189)</sup>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차보고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등 주요 보고서와 기준금리 조정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수립과 업무수행에 반영하였다.

#### 대국민 행사 개최

한국은행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대국민 소통의 기회로 삼았다. 먼저 청소년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젊은 세대와 당행과의 소통 기회로 활용하고자 「청소년 경제 알기 UCC 공모전」을 개최하여 응모작 69편 중 8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통화정책 경시대회<sup>190)</sup>」 개최를 통해 대학생들이 경제상황 분석과 모의 정책금리 결정을 경험해봄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통화정책 워크숍<sup>191)</sup>」을

18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II-3. 한국은행 블로그 개설·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9)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의 역할 충실성에 대한 일반국민 및 전문가의 긍정 평가 비중은 각각 37.2%, 69.7%였다.

190) 대학생들에게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모의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03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동영상 및 화상회의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나, 2022년에는 방역수칙 완화 등에 따라 대면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위험 관리 필요성이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하여 청중이 없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개최하여 주요 금융경제 현안과 함께 지역별 주  
 택가격 동향 및 리스크 등 지역경제 현안에 대  
 한 의견을 학계와 교환하고 한국은행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힘썼다.

그림 II - 29. 통화정책 경시대회 결선 (2022년 8월 12일)



자료: 한국은행

##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함에 따라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등  
 을 통한 대중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먼저 홈페이지<sup>192)</sup> 내 개설된 블로그를 통해 금융  
 경제현안에 대한 임직원의 견해를 공유하고, 새  
 롭게 추가된 「정보·동향자료」 메뉴를 통해 한국  
 은행이 생산하는 업무정보, 시장동향 자료를 공  
 개하는 등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확충하였다.

표 II - 31. 홈페이지(메인) 방문자 수 (기간 중)

프로그램	2019	2020	2021	2022
홈페이지 방문자 수	4,336	6,069	6,474	8,358

자료: 한국은행

이와 더불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  
 하여 한국은행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한국은행 유튜브<sup>193)</sup> 및  
 SNS<sup>194)</sup> 채널을 통해 「위조지폐 감별법 및 유통  
 방지», 「누리호 발사 성공 기념주화」 등 이벤트를  
 개최하여 한국은행의 업무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업  
 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주요 보고서,  
 보도자료 등을 동영상, 캘리그래피, 인포그래  
 픽,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적극 제공하였다. 특  
 히 일반 국민이 한국은행의 업무와 금융경제  
 지식을 보다 친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BOKFLIX」, 「복고한은」, 「한은경제 snapshot」,  
 「복터뷰」, 「행BOK한 이중생활」 등 SNS 콘텐츠  
 와 화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  
 낸 「알쓸신화」, 실생활에 밀접한 금융경제 상식  
 을 배우는 「김기열의 돈공부」 등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제작하였다. 이처럼 소셜미디어 채널  
 별 특성을 고려해 수요자 친화적인 콘텐츠를 주  
 기적으로 제공하면서 한국은행 소셜미디어 채  
 널의 구독자(팔로워)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  
 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통화정책방향 및 보도자  
 료 기자간담회, 국제컨퍼런스 등의 실시간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반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191)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였으며 총 19명의 대학교수가 참석하였다.

192) 홈페이지.

193) 유튜브.

194)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표 II - 32. 한국은행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sup>1)</sup>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 그램
개설 시점	2013년 7월	2014년 8월	2014년 8월	2014년 10월	2021년 3월
수록 콘텐츠 수(개)	1,224	2,243	2,259	2,121	275
구독자 수 (명)	53,920	42,311	4,037	11,470	13,999

주: 1) 2022년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 대국민 서비스 강화

화폐박물관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대면 및 비대면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였다. 「화폐로 만나는 우크라이나」, 「그림을 읽다」 등의 기획전을 개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주말 체험강좌 및 전시설명을 일부 재개하는 등 대면 서비스를 확충하는 한편, 비대면 전시설명, 온라인 체험강좌 및 하계 어린이 박물관 교실 등 비대면 프로그램도 다각화하여 총 107회, 2,9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화폐박물관의 노력으로 화폐박물관 관람자 수가 13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II - 33. 화폐박물관<sup>1)</sup> 관람자 수 (기간 중)

	2020	2021	2022
관람자 수	31	40	130

주: 1) 지역본부 화폐전시실 포함

자료: 한국은행

이 밖에도 외환거래심사, 통화정책, 경제통계, 화폐발행 등 한국은행 업무와 관련한 국민들의 문의와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였다.

표 II - 34. 민원 처리 실적<sup>1)</sup> (기간 중)

	2020	2021	2022
처리건수	1,494	1,992	2,041

주: 1) 민원사무처리부 사후 등록, 중복 건수 제거 등으로 변동 가능

자료: 한국은행

## 사회공헌활동 지속

한국은행 직원들은 중앙은행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대면 봉사활동이 제한된 점을 감안하여 사회복지단체 앞 성금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무료급식단체, 아동·노인 복지시설 등에 쌀 및 생필품 기부, 성금 전달, 노력 봉사 등을 통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였다.

이와 함께 자율기부 특별기간을 신규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성금모금 및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였다. 한국은행은 자율기부 특별기간 중 온정 더하기 이벤트, 기부 워크(walk) 챌린지, 명사 초청강연 등 다양한 특별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금된 직원성금을 기부단체에 전달하였다.



자료: 한국은행

### 나. 경제교육 활동 강화

한국은행은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에 대응하여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함양 및 한국은행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경제교육을 수행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주춤해짐에 따라 현장교육을 재개하는 한편, 비대면·디지털 기반 교육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동영상 콘텐츠, 화상강의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교육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2022년 중 한국은행 경제교육 실적은 현장교육을 재개함에 따라 2021년 대비 교육횟수 및

교육인원수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표 II - 35. 현장 경제교육 실적<sup>1)</sup>

	2020	2021 <sup>2)</sup>	2022 <sup>2)</sup>
일반인 대상 경제교육	139 (5,986)	233 (7,203)	365 (16,374)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	45 (2,123)	197 (8,797)	357 (14,718)
합계	184 (8,109)	430 (16,000)	722 (31,092)

주: 1) ( ) 내는 교육 인원수

2) 화상강의 포함

자료: 한국은행

### 일반인 대상 경제교육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제분야 전문 지식을 강의하는 「한은금융강좌」를 2022년 7월 부터 현장강의로 전환함으로써 청중과 상호작용할 기회를 늘렸다. 대중과의 소통 증진을 목적으로 서영경, 박기영 금융통화위원의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청중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경찰청, 감사원, 국세청, 강원도청 등 정부기관과 고용센터에서 경제 및 금융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밖에도 대학 정규 과정으로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 II」 및 「화폐금융론」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경영경제특강」 및 「경제의 이해」를 한국은행 직원이 직접 강의하였다.



그림 II - 31. 「한은금융강좌」 금융통화위원 특강



자료: 한국은행

또한, 한국은행은 정부, 지자체와의 교류를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2022년 중에는 국회의원 및 국회직원들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회사무처와의 경제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회 최고위 경제금융과정」을 실시하였다. 강사로는 한국은행의 고위직 직원이 참여하였으며, 수강생들은 강의주제에 대한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는 등 강의에 대한 높은 호응을 보였다.

그림 II - 32. 「국회 최고위 경제금융과정」 이창용 총재 강연



자료: 한국은행

##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

청소년 대상 교육으로 한국은행 직원 및 「경제교육봉사단<sup>195)</sup>」이 직접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 경제강좌」를 실시하였다. 간접교육방식의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직무연수」를 실시간 화상강의로 실시하였다. 동 연수는 비대면 상황에서 강의자와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sup>196)</sup>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금융경제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체제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다.

OECD INFE(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sup>197)</sup>가 주관하는 「국제금융교육주간(Global Money Week)」 캠페인<sup>198)</sup> 기

195) 대학생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 대상의 경제교육 강사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2013년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2023년부터는 공식적으로 YES(Young Economic education Supporters의 약자)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196)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금융소외계층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회계층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197) 금융경제와 관련하여 국가 간 정보 교환 및 국제표준(모범사례)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08년 5월에 설립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특별기구이다.

198) OECD INFE는 금융교육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매년 3월 넷째 주를 국제금융교육주간으로 지정하고 국제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다.



간(2022년 3월 넷째 주)에는 금융감독원 등 국내 금융경제교육기관과 협업하여 세미나 및 화폐박물관 온라인 투어와 연계시킨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히, 6월에는 라오스 중앙은행의 요청에 따라 한국은행의 대국민 경제교육 경험 등을 전수하였다.

### 온라인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경제교육 책자를 개정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경제교육에도 주력하였다.

경제·금융 주제 중에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주제 4편을 선정하여 「퀴즈로 보는 경제강의」 동영상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기준금리, 예금/대출금리,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영상 내용을 학습한 후 퀴즈를 통해 동 내용을 복습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II - 33. 동영상 「퀴즈로 보는 경제강의」



자료: 한국은행(1편, 2편, 3편, 4편)

### 경제교육 관련 대외 교류협력 강화

학교 밖 경제교육 강화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경제학회 등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였고 OECD INFE의 연례회의에 참여하여 각국의 경제교육 목표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도 적극 공유하였다. 특

## 참고 II-3.

### 한국은행 블로그<sup>199)</sup> 개설·운영

한국은행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계기로 빠르게 늘어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수요에 대응하여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2년 5월말부터 대외 소통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한국은행 홈페이지 내 ‘블로그’를 신설하였다. 한국은행 블로그는 통화정책, 경제상황 분석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한국은행 임직원의 의견을 일반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공간이다. 참고로 블로그와 함께 업무정보, 시장동향 자료 등 한국은행이 생산하는 자료의 대외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 6월 홈페이지 내 「정보·동향자료」 메뉴도 새로 개설하였다.

2022년 5월~12월 중 총 34개의 블로그를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통화정책 결정 배경, 국내외 다양한 경제현안과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서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연말 신용채권시장 등 금융불안 우려가 확산된 상황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균형있게 바라보기」, 「최근 단기금융 및 채권 시장 불안과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 블로그를 게시하여 금융안정 현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블로그 게시물 중 일부를 국민들의 영상 콘텐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5분 내외 길이의 영상(「BOK코멘터리」)으로도 제작해 한국은행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sup>20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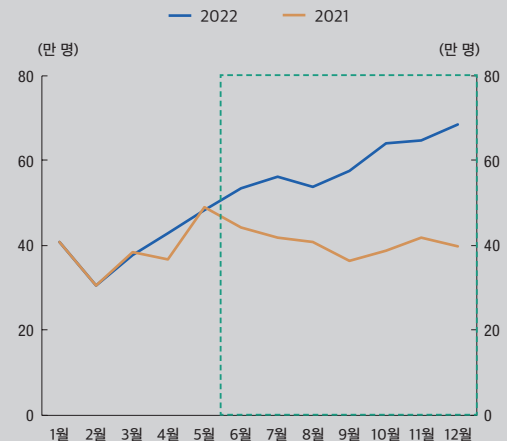
그림 II - 34. 유튜브 「BOK코멘터리」



자료: 한국은행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중 647.4만 명이 방문했던 한국은행 홈페이지는 2022년에는 835.8만 명이 방문하면서 전년에 비해 방문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블로그를 개설한 2022년 5월 이후 방문자 수는 2021년의 같은 기간 중 방문자 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II - 35. 2021년 및 2022년 월별 홈페이지 방문자 수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경제현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99) 한국은행 블로그.

200) 한국은행 유튜브 「BOK코멘터리」.

## QR BOX



QR 1  
한국은행 홈페이지



QR 2  
한국은행 유튜브



QR 3  
한국은행 페이스북



QR 4  
한국은행 트위터



QR 5  
한국은행  
카카오토리



QR 6  
한국은행  
인스타그램



QR 7  
한국은행 블로그